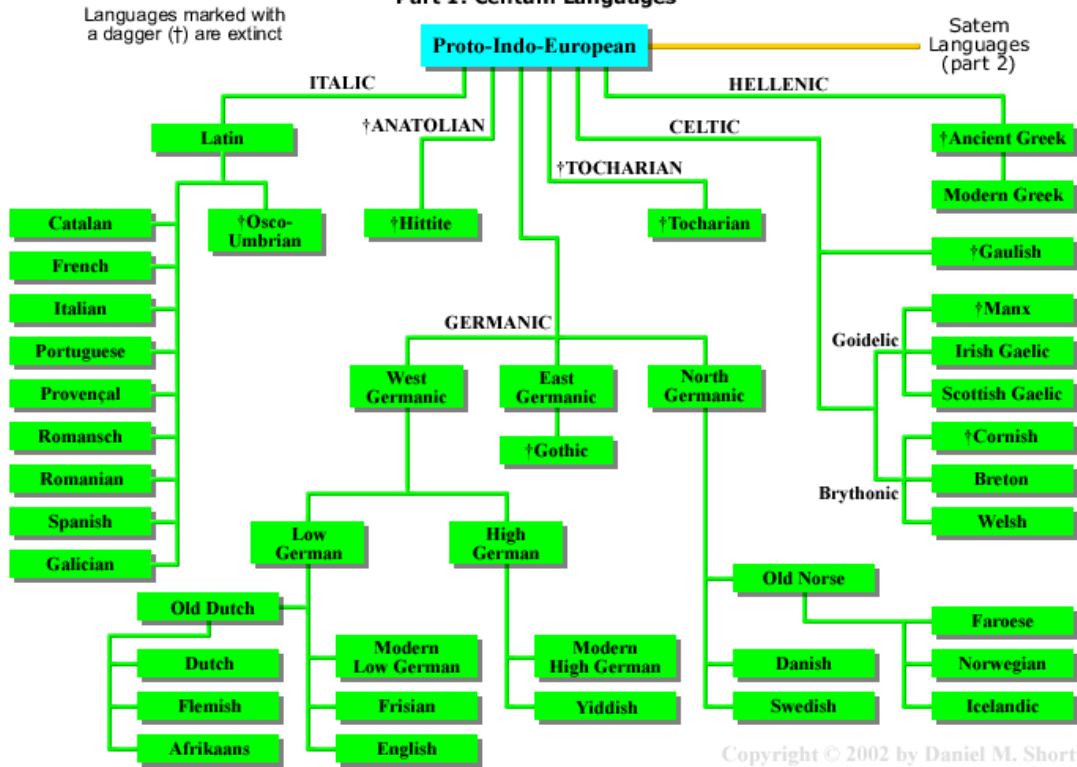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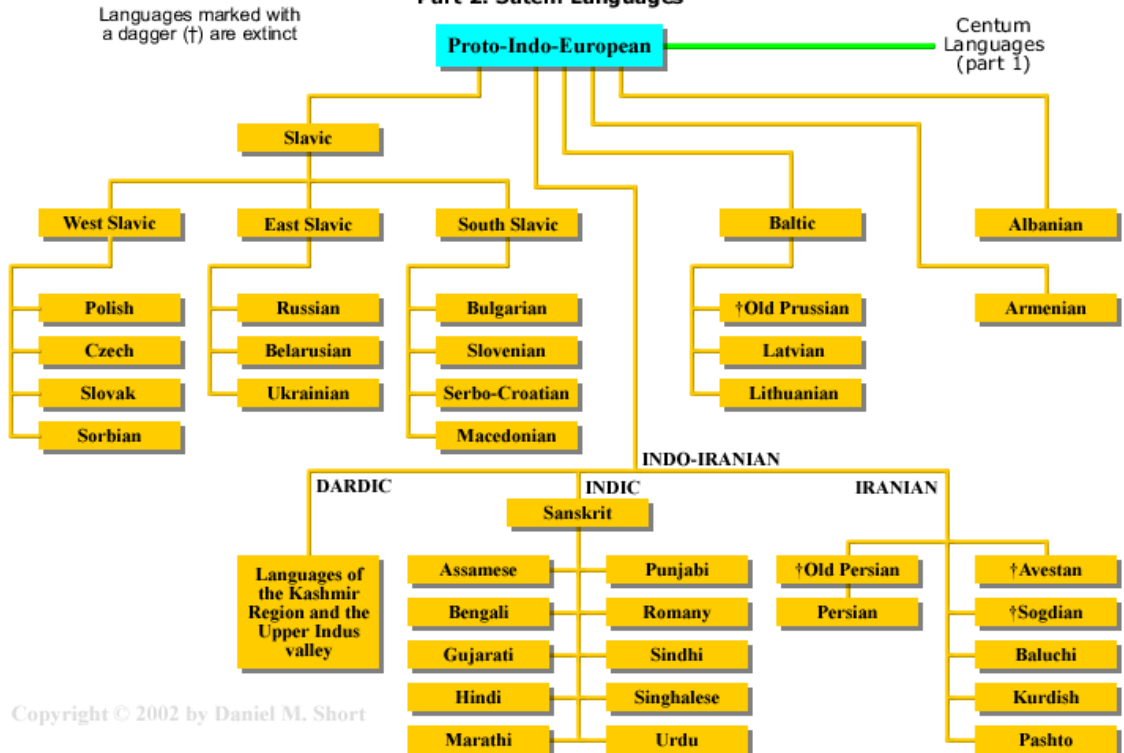
Indo-European Language Tree

Part 1: Centum Languages



Indo-European Language Tree

Part 2: Satem Languages



1)호메로스 이전의 선형(linear, 線形)문자들.

처음으로 확인된 문서들은 겨우 1952 년에서야 해독된 음절어 Linear B[? 윗 왼쪽: 크레타(Crete) 섬 Knossos에서 발굴된 것으로 초기 크레타인의 ‘hieroglyphic’ 스크립트로 쓰여진 점토판으로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된 윗 오른쪽 Linear A 보다 이르다?(이 부호는 인터넷 출처를 나타낸다: 서버 프로그램언어 PHP)]로 기원전 13 세기부터 쓰여진 Mycenaean Greek이다. **Alphabetic Greek**은 호메로스의 시들과 더불어 시작, 기원전 800 년 경부터 연속적으로 확인되어, 고전기와 헬레니스틱 (코이네, **koiné**) 기간을 거쳐 중세(Byzantine)와 현대에로 주욱 이어진다.

1-1) 선형문자 B — 1900 년에 고고학자 Arther Evans는 Crete의 Knossos에



서 신비스러운 기호들이 새겨진 많은 점토판을 발견했다. 미노스 왕이 괴물 Minotaur를 감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미궁(labyrinth, 迷宮)과 더불어 왕 미노스의 궁전을 발견했다고 믿으면서 비문(inscriptions, 碑文)들과 이 비문들이 제공하고 있는 언어들을 ‘Minoan’이라고 이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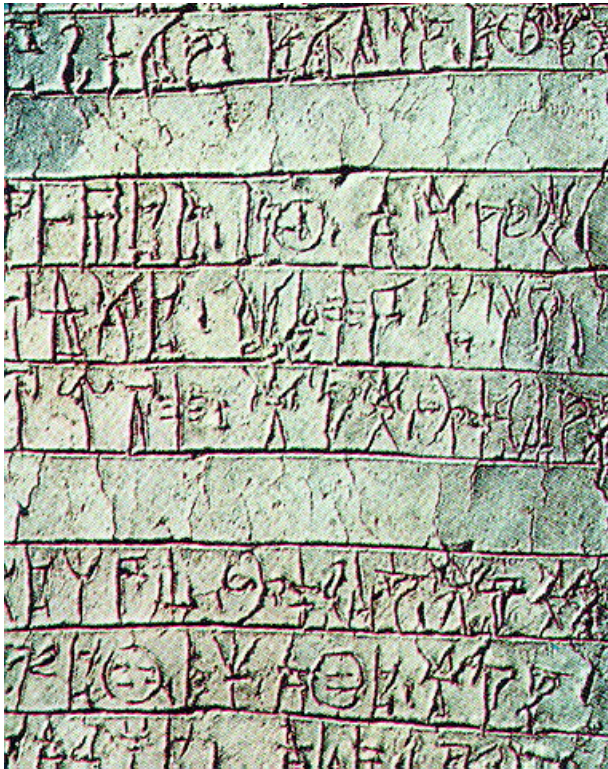
에반즈는 비록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삶 나머

지를 그 비문들 해독에 바쳤다. 그는 그 비문들이 ‘*hieroglyphic*’(상형문자)와 Linear A와 Linear B라는 다른 세 가지 쓰기 체계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했다.

상형문자 스크립트는 단지 인장석(seal stone, 印章石)에만 나타나지만 그래도 해독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독되지 않은 **Linear A**는 그 상형문자로부터 전개되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Linear B는 아마 Linear로부터 전개되어 나왔을 것이다. 비록 그 두 스크립트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말이다.

에반즈는 선형문자(Linear, 線形文字) B의 짧은 선은 낱말을 나누는 것들이라고 여겼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로하여금 그 스크립트는 주로 그림문자(*pictographic*)

라고 믿게끔 한 많은 그림문자들과 그리고 계산체계를 해독했다. 마찬가지로 그



는 선형문자 B와 그리고 해독됐던 키프로스 스크립트(Cypriot script) 사이의 많은 유사점(Parallels)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선형문자 B에 의해 나타내진 그 언어가 그리스어의 고대 형식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선형문자 B는 그리스어와는 관련없는 언어인 미노아 사람들의 언어로 사용됐다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1939 년에 선형문자 B가 새겨진 많은 점토판들이, 선형문자 B는 단지 Crete에서만 사용됐다고

생각했던 에반즈를 많이 놀래키면서, 그리스 본토 Pylos(좌측 그림)에서 발견됐다. Pylos의 Mycenaean쪽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은 일련의 다른 신들의 계보를 기록한다. 이것은 필로스 궁전 파괴 때 우연히 불에 의해 구원된 것이었다.

Michael Ventris(1922-1956)는 결국 1953 년에 선형문자 B를 해독해 낸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아더 에반즈에 의해 조직된 미노아 세계 전시회에 수학여행 온 1936 년에 폭발됐다. 이후 17 년 동안 벤트리스는 선형문자 B를 이해하는데에 고군분투했다. 처음에 그는 선형문자 B가 그리스어라는 데에 회의심을 품었다. 비록 심지어 해독된 많은 낱말들이 그리스의 원시형식(archaic form)을 닮았었지만 말이다. 후에 초기 그리스어 전문가 John Chadwick의 도움으로 벤트리스는 이유있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선형문자 B가 실로 그리스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래 그림1은 음절(syllabary, 音節)적인 선형문자 B이며, 그림2 선형문자(Linear, 線形文字) B의 어표(logograms, 語標)들은 전체 낱말들과 교역(traded, 交易)항목들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선형문자 주로 교역행위들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됐으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표들 몇 몇은 나타내어지고 있는 물건들(things)을 닮았기에 그림문자(pictograms)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그러

나 모든 어표들이 해독됐던 것은 아니다.

그림1: 음절적인 선형문자 B

그림2: 어표로서의 선형문자 B

	A	E	I	O	U	A2	O2	U2
D								
J								
K								
M								
N								
P								
Q								
R								
S								
T								
W								
Z								

Other symbols

au (?) pi (?) pa (?) twe (?)

Unclassified symbols

1-2)선형문자 A - 선형문자 A를 선형문자 B와 구분시키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ㄱ) 선형문자 A는 기원전 약 1800 년 경부터 기원전 1450 년 사이에 사용됐다; ㄴ) 선형문자 A는 음절들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들 60 개와 소리들과 구체적인 대상들 또는 추상적인 관념들을 나타내는 sematographic 기호들이 뒤섞인 스크립트이다. ㄷ) 많은 기호들이 선형문자 B에서 사용된 것들을 닮아있으며 그리고 동일상 발음이 배정돼있다. ㄹ) 선형문자 A는 아마 교역의

기록들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됐을 점토판들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진행하며 쓰여졌다.

선형문자 A의 기호들을 어떻게 음역하느냐에 관한 일치는 있지 않다. 앞 쪽 좌측에서 보여지는 방법은 가능한 하나의 음역일 뿐이다.

1-3)Cypriot syllabary – 기원

키프로스 음절(Cypriot syllabary) 또는 Cypro-Minoan(키프로스-미노아) 글쓰기는 크레테의 선형문자 A 또는 가능하게 선형문자 B로부터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이것들의 정확한 기원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키프로스 음절문자는 기원전 약 800 – 200 년까지 사용됐다.

주목할만한 특색들로는 ㄱ) 보통 수평선으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쓰여진다. ㄴ) 낱말들은 분리(word breaks)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아래 키프로스 음절문자들은 해독되어야 한다(출처: <http://www.omniglot.com/writing/linearb.htm> 2005년10월23일) ?.

												
a	ta	ga	ka	pa	la	ma	na	ra	sa	va	xa	ya
												
e	te		ke	pe	le	me	ne	re	se	ve	xe	
												
i	ti		ki	pi	li	mi	ni	ri	si	vi		
												
o	to		ko	po	bo	mo	no	ro	so	vo	zo	yo
												
u	tu		ku	pu	lu	mu	nu	ru	su	vu		

2)호메로스로부터 코이네 이전까지의 그리스어.

그리스 어(희랍어)는 인도-유럽어족 중의 하나이다. 현대 언어는 그것의 앗
딧 방언이 많은 다른 방언들 중에서도 우세하게 된 고대 그리스어의 가장 최근
의 발전이다. 앗딧 방언으로부터 Koine 또는 공통 방언이 발전했다. 코이네는 알
렉산더 제국과 그리고 헬레니스틱 세계에 두루 퍼져 있었다. 동일한 언어(tongue,
言語)가 비잔틴 제국에서 사용됐으므로 현대 그리스어의 문어(literary, 文語)가
됐다. 그러나 말해진(spoken) 언어는 일련의 다른 길에서 발전했다.

그리스(Greek) 라는 낱말은 로마인들이 그들과 이탈리아 Cumeae에서 접촉
하게 된 의의있는 공통체(Graioi)의 그것으로부터 취해진 다음 그리고 나서 아른
모든 그리스어로 말하는 도시들로 확장됐다. 중세 동안에 그리스인들은 자신
들의 언어를 *Romaic*(그리고 그들 스스로 *Raomans*)라고 부르면서 로마제국의 수
도를 Constantinople로 옮겼다. 그러나 그들을 보통 자신들을 **Hellenes**라고 그리
고 자신들의 언어를 **Hellenic** 이라고 불렀다.

/그리스어는 호메로스 저작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삼 천 년에 걸친 연
이은 문학 역사를 지닌다. 그리스인들의 조상들은 일찌기 기원전 2000 년 경
쓰음 일련의 에게 해 세계(Aegean world) 침입들 중 첫 번째 것을 행했다고 믿
는 것은 이유있다. 그 이후로 수 세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 보다 이전에 지금 그
리스(Greece)와 그리스 섬들과 소 아시아의 부분인 곳에 살았던 인도유럽어적
이지 않는 사람들을 갈아치우거나 또는 점령하는 데에 충분했다. 기원전 1335-
1325의 Hittite 편지들에 언급된 *Ahhiyawa*는 호메로스의 Achaeans(아카이아들)
과 동일할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추정되어왔다. 다양한 그리스 공통체들은 (현
대 그리스인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을 헬레네스(Ἕλληνες)로 지시했으며, 자신들
의 나라 땅(country)을 헬라스(ἡ Ἑλλάς)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를 헬레닉어(ἡ
Ἑλληνική γλῶσσα)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들을 로마인들에 의해 주어진 이름인
Graeci(라틴어)로부터 파생된 **Greeks**(그리스인들)이라고 부른다—로마인들은 자
신들이 알게된 첫 번째 헬레네스인 *Γραῖοι*에 고유하게 한정된 이름을 그 전체 사
람들에게 적용해버렸다.

Graeci(더 오래된 형은 *Graici*)는 라틴어 접미어 *-icus*를 포함한다. 그리고 아리
스토텔레스에게서 처음 발생했던 그 이름 *Γραικοί*은 라틴어로부터 빌려와진다 그
로마 지시어는 이탈리아의 *Cyme*의 식민지화에 참여했던 **Boeotian** 부족인 *Γραῖοι*
로부터 또는 *Epirus*에 살았던 동일한 재원의 더 큰 부족인 *Γραῖοι*로부터 파생된다.

호메로스에서는 ‘모든 그리스인들’(all Greece)에 해당되는 집단적인 이름이 없다. 호메로스에게 헬레네스는 Peleus(B 683) 왕국을 형성하는 행정구역부분인 그리고 Thessaly라고 후에 불리워진 땅의 남동쪽에 위치한 헬라스의 거주인들이었다. ‘모든 그리스인’에 해당하는 ‘Ἑλλάς(헬라스)’는 헤시오도스(Hesiod)에게서 처음 발생한다. 그리스인(the Greeks)들은 호메로스에 의해서 ‘Ἀχαιοί, Ἀργεῖοι, Δαναοί’로 불리운다./

이 언어는 Attic, Ionic, Aeolic, Doric, Arcadian과 Cyprian으로 분류되는 많은 방언들로 나뉜다. 선형문자 B의 해독은 기원전 약 1500 년 이후 그리스 그 자체 안에서 생겨난 (지금은 자주 Mycenaean 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리스어 형식의 하위 나뉘는 결과가 방언들이지,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분리된 층(strata, 層)들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다양함들의 결과가 아니라는 가정으로 이끌었다. 방언의 다름은 Aeolic 텍스트와 그것의 Attic 판본(version, 板本)의 비교에 의해서 예시될 수 있으리라.

Στάλλα'πι Σθεναΐαι ἔμμι τῷ Νικιαΐῳ τῷ Γαυκίῳ,
 Στήλη ἐπὶ Σθεναΐα εἰμι τοῦ Φαυκοῦ
 “I am the memoiral stone to Stheneias, son of Nicias son of GAUCOS”
 그러나 Aeolic에서는 아주 문자적으로 “to the Gaucian Nician Stheneias.”

이 예는 마찬가지로 고도로 동사활용하는 그리스어의 활용(inflexion, 活用)의 쓰임새들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어는 Balkan peninsula와 Asia Minor 서쪽해변과 남부 이탈리아와 Sicily와 그리고 Ionian와 Aegean 바다의 섬들에서 자신의 형식들 중의 하나 또는 다른 것으로 말해졌다. 기원전 4 세기에 이르기까지(by) 아테네의 정치적 우위와 앗티 문학의 위대함은 앗티 방언을 결국 다른 방언들 대신 들어서는 모든 Greeks를 위한 중심어(*lingua franca*, 中心語)의 토대로 만들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은 이런 중심어 또는 코이네(*Koine*)의 형식을 통해 그리스어를 (소 아시아, Syria, Mesopotamia, Egypt 등의) 전체 근동의 언어로 만들었다. 로마의 지배 하에서도 이런 지역들은 그리스어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현대에도 Bulgarians와 Russians와 Derbians은 그리스 알파벳의 수정된 형식을 사용한다.

2-1) 텍스트들의 진본성(Authenticity, 眞本性).

기원전 15 세기의 가장 오래된 문서들은 그리이스 본토(Pylos, Mycenae)와 Cretet 섬으로부터의 점토판들이다. 이것들은 그리이스어 알파벳이 아니라 독특한 음절어로 기록된 것들이며 처음으로 1951 년에야 해독됐다. 알파벳 스크립트로 된 보다 후의 텍스트들이 어떤 것은 원본으로 다른 것들은 필사본(copies, 筆寫本)으로 살아 남았다. 이러한 원본들은 두 가지다: ㄱ) 그리이스와 근동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 그리고 돌에 새겨진, 비문들, 칙령들, 협정(treaties)들, 성전목록들과 헌정(dedication, 憲政); 가장 이른 것은 날짜가 기원전 8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것들은 5 세기와 그 이후의 것들이 수적으로 많다; ㄴ) 기원전 4 세기와 기원후 8 세기에 사이에 Papyrus(파피루스)에 쓰여진, 그리고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거기로부터의 발굴들이 다량의 그것들에게 빛을 비추어준 이집트의 건조한 사막 모래들에 의해 보존된 (편지들, 계약서와 거래장부) 문서들. (파피루스들이 기원후 79 년 Vesuvius 폭발에 의해 매장된 Herculaneum을 제외하면) 그리이스어로 말하는 세계의 다른 부분들로부터는 그 파피루스들이 되찾아지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에 양피지에 쓰여진 법률문서들은 As Salihyah(메소포타미아의 고대 Doura-Europus)와 (Parthia) Avroman에서 발견됐다.

문어(literary, 文語)적인 그리이스어에 관한 우리의 거의 모든 앎이 거기에 토대를 둔 필사본들은 처음에는 파피루스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양피지 또는 종이 위에 쓰여졌다. 오랜 동안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이스 수고(manuscripts, 手稿)들은 양피지에 쓰여진 그리고 날짜가 [기원후] 4세기와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이스 성서를 포함한 것들이다. 그리고 다른 그리이스 저작들의 텍스트들은 (일반적으로) 9세기와 10세기 보다 더 오래이지는 않을 양피지 (후에는 종이) 수고들로 보존됐다. 이것들이 현재 앎의 가장 폭 넓은 토대들로 남아있다. 그러나 다른 발굴들이 어떤 것은 단지 조각들 뿐인 반면 어떤 것들은 아주 실체적인 두루마니나 책들인, 호메로스(homer)와 다른 고전적인 텍스트들의 파피루스 수고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런 것들 중 몇 몇은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에 쓰여졌고, 대 부분은 기독교 시대의 가장 이른 세기에 쓰여졌다. 사라졌던 저작들의 파피루스 필사본들이 많은 경우에 되찾아졌으나, 중세 수고들에 있어서의 필사본들은 생존하지 못했다.

그 언어와 그것의 발음과 스펠링(철자법)과 어휘에 관한 앎의 중요한 취득은 진본이라고 인정된(authenticated) 그렇게 많은 텍스트들의 되찾음(recovery, 회복)으로부터의 결과였다. 중세 필사본들이 앎의 유일한 자원인 한, 그것들이 제공하고

있는 철자법과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내주는 확실한 다양함들에 관한 신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를들어 $\epsilon\iota$ 와 ι ($\tau\epsilon\lambda\mu\acute{\eta}-\tau\lambda\mu\acute{\eta}$; $\acute{\alpha}\pi\omicron\tau\epsilon\lambda\sigma\alpha\iota-\acute{\alpha}\pi\omicron\tau\iota\sigma\alpha\iota$, 등)사이의 다양함은 거의-이해될수없는 문제거리였다. 더구나 Herdian(2세기)와 Choeroboscus(6세기)와 다른 자들의 문법적인 고찰들은 이런 문제들이 이미 기독교 시대의 초기 세기들에 그 자체 제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법가들은 의심나는 경우들의 특별한 철자들을 다시 추천해주는 낱말들의 목록들을 이끌어 들인다. 그러나 그 문법가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로 또는 수고들의 교정을 위한 진실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자로 어느 선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는 의심스럽다.

비문들과 파피루스들은 한 때 그리고 오랫동안 논쟁적인 철자법을 해결해주는 증거를 자주 제시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후에 동일하게 된 어떤 음소들이 여전히 서로 구분됐을 때까지 날짜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약 기원전 150 년 보다 더 이른 어느 날짜가 메겨지는 비문들과 파피루스들은 $\epsilon\iota$ 와 ι 사이의 망설임으로부터 거의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예를들어 $\acute{\alpha}\pi\omicron\tau\epsilon\lambda\sigma\alpha\iota$ “to say”) 어떤 단어에서는 예외없이 $\epsilon\iota$ 를 지니며 그리고 (예를들어 $\tau\acute{\iota}\mu\eta$) 어떤 단어에서는 예외없이 ι 를 지닌다. (대략) 기원전 150 년 이전에는 그 두 철자들이 구분된 소리들을 나타냈으나, 기원전 150 여 년 이후에는 그 소리들이 동일해져, $\epsilon\iota$ 와 ι 라는 철자들이 상호 교환될 수 있었다. 또 기원전 3세기의 그리이스어는 긴 이중모음 $\alpha\iota\ \eta\iota\ \omega\iota$ (철자 $\alpha\eta\ \omega$ 는 12세기 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았다)을 소유했다. 기원전 2세기 말 경부터 그것들은 ι (이오타)없는 $\alpha\ \eta\ \omega$ 로 쓰여졌다. 이것이 그것과 더불어 발생하는 일정성(uniformity, 一定性)과 그른 위치에 그 이오타(the iota, 아이오타)의 나타남($\acute{\alpha}\nu\omega$ 대신에 $\acute{\alpha}\nu\omega\iota$ 와 같은 흔한 철자들)은 기원전 3 세기 전에는 반드시 발음됐을 아이오타는 기원전 1세기에 발음되기 그쳤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더 오랜 그 철자를 알았다고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생각했던 자들에 의해 때로 글쓰기에 있어 덧 붙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소한도 아이오타에 관한 하나의 잘못된 복구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중세 수고들(심지어 가장 정확한 것들에서조차도)과 후기 비문들이 $\acute{\rho}\alpha\theta\upsilon\mu\acute{\epsilon}\iota\nu$ 를 제공하는 곳에서, 기원전 3 세기의 파피루스들은 근원적인 것이며 그리고 유일하게 올바른 철자법인(아이오타없는) $\acute{\rho}\alpha\theta\upsilon\mu\acute{\epsilon}\iota\nu$ 을 지닌다. $\acute{\rho}\acute{\alpha}\delta\iota\omicron\varsigma$ 와는 달리, 그 단어는 결코 아이오타와 함께 발음 될 수 없었으리라. 하나의 예로 충분하다: 기원전 1 세기의 비문들과 파피루스들에서의 $\acute{\epsilon}\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라는 단어는 자주 $\acute{\epsilon}\alpha\tau\omicron\upsilon$ 로 쓰인 반면,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는 $\acute{\alpha}\tau\omicron\upsilon$ 로 쓰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acute{\epsilon}\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가 처음에는(다른 축약을 지니는 이오니아 방언 $\acute{\epsilon}\omega\upsilon\tau\omicron\upsilon$ 에서처럼 $\acute{\epsilon}\omicron\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로부터의 축약에 의해 파생된) $\acute{\epsilon}\acute{\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로, 후에 $\acute{\epsilon}\acute{\alpha}\tau\omicron\upsilon$ 로 발음됐기 때

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철자법 연구에 의해서 그리스어 발음의 주요한 변화가 두드러진 정확성을 지닌 채 그 날짜가 매겨질 수 있다.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현대 그리스어로의 전이과정을 표시하는 변화들 중 많은 것이 그 기독교 시대에 삼 또는 사 세기 앞선 그리고 삼 또는 사 세기 늦은 그 사이에[기원전 3 또는 4 세기와 기원후 3 또는 4 세기 그 사이에] 일어난다. Herodian이 말했으며 글로 썼던 시기(2 세기)의 언어는 이미 애틀카어와는 달랐으므로, 헤로디아누스의 철자 규칙들은 동시대 발음의 관찰이 아니라(그것은 사실 이것과 그리고 철자 규칙들을 필연적이게 만들었던 전통적인 철자법 사이의 갈라섬(divergence, 이다), 골동품적인(antiquarian) 탐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반드시 추측돼야만 한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현대의 탐구자가 헤로디아누스를 넘어서는(over) 장점을 지니고 있다.

2-2) 엑센트 전통의 본성.

돌 또는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또는 종이 위의 그리스어 텍스트들은 보통 낱말 사이의 여백들이 없이 쓰여지며[떠어 쓰기가 없으며] 그리고 기식들과 엑센트들의 연이은 사용은 단지 9세기 이후부터의 중세 수고들에서만 발견된다. 비문들(드문 예외를 지남)과 문어적이 아닌 파피루스들은 전적으로 기식들과 엑센트 없다. 동일한 것이 자주 문어적인 파피루스드에도 진실이다. 그러나 문어적인 파피루스들은 때로 다소 산발적으로 기식들과 엑센트들을 지닌 채, 특히 서사시적인 또는 드라마적인 또는 서정시적인 텍스트들에 표시된다. 엑센트를 지니는 문어적인 파피루스들은 기독교 시대를 여는 세기들 보다 주로 더 오래지 않다.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의 엑센트와 기식들이 부호들로 쓰여진 발음의 특색들은 그 부호들의 쓰임새들 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 그리스 저자들의 수많은 지시들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Apollonius Dyscolus와 기원후 2 세기에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글을 썼던 그의 아들 Herodian으로부터 다양한 높 낮이(pitch)를 지니는 그리스어의 엑센트화에 관해 배워왔다. 예큐트(acute) 엑센트로 표시되는 음절은 높이 말해지며, 인쇄된 책들에서 그라브(grave) 엑센트로 표시되는 또는 전혀 어떤 표시도 없는 다른 것들은 낮게 말해지는 반면 서컴플렉스된(cirsumflexed) 음절들은 그 음절의 첫 부분은 두 번째 부분 보다 더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높이로 말해졌다. 이러한 것이 문법가들의 진술들과 그리고 다른 어떤 증거(예를들어 엑센트화된 파피루스들에서 발견되는 표시(marks)들과 그리스 음악의 부족한 유물들)로부터의 가장 그럴듯한 추출(inference, 抽出)이다. 비록 여러 요점들이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는 해도 말이다. 현대 인쇄 판본들에서의 그리스어의 전통적인 엑센

트화의 일반적인 정확함과 동시에 가장 오래됨은 그것과 그리고 *베다 산스끄리뜨어*와의 비교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으리라. 이 두 가지 언어는 양자의 경우에 가정된 부모 “인도유럽어”로부터의 단절되지 않는 구전(oral, 口傳)적인 전통을 가리키는 놀라운 많은 일치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1876년 Karl Verner는 독일어에서의 어떤 자음 변화들은 만약 그래서 그리스어와 산스끄리뜨어에서 관찰된 엑센트의 위치가 마찬가지로 독일어에서 어느 한 때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논증했다. 엑큐트와 서컴플렉스 사이의 구분의 오래됨은 상응하는 구분을 지니는 현대 Lithuanian의 엑센트와 비교함을 통해서 논증됐다.

플라톤과 같은 고전 저술가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기식들과 엑센트 표시들은 심지어 많은 것들을 생략(remove)한다손치더라도 그의 자필(autograph, 自筆)로부터는 필사될 수 없었다: 플라톤은 낱말들을 형성하는 단지 일련의 문자들 이상의 그 무엇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h 또는 높은 음을 글로 쓰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는 그 h 또는 그 높은 음을 발음했다는 것 그리고 플라톤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로 9 세기의 비잔티움 학자들에 의해) 기식들과 엑센트 표시들을 끼워넣었던 자들은 동시대의 생생한 말(엑센트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현대 그리스어와 동일하다)에 의해 그리고 연이어지는 다양한 정도의 고전적인 앞에 의해 이끌렸다는 것은 선명하다.

2-3) 초기 그리스어의 다양함들.

기원전 7 세기에서 기원전 4 세기의 비문들의 언어는 알파벳과 스펠링(spelling, 철자)의 다양함들과 그리고 방언들의 다양함 등 두 가지 종류의 다양함들을 제시한다.

2-3-1) 알파벳과 스펠링의 다양함.

그리스어 알파벳은 셈어 알파벳의 응용(adaptation, 應用, 채용採用)이며 그리고 지역과 연대(date)에 따라 다르다. 이런 다름들중의 하나, 즉 ε와 o 소리를 나타내는 다양한 양상은 그 언어에 빛을 던져준다.

ε + ε (ě + ě)의 축약이, 처음에는 긴 ē에서, 반드시 선명하게 결과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o + o의 축약이 반드시 ō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4세기 앳티카어(그리고 후기 그리스어)에서의 ει 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긴 ē로서 처음부터 반드시 발음됐다(ἐπεστάτε-ε로부터의 ἐπεστάτει 형식). 그리고 비슷하게 (μισθόμεν으로부터

의)μισθοῦμεν의 ou도 처음부터 이중모음 ou가 아니라 ō로 반드시 발음됐다. 가장 초기의 비문드에서의 이런 소리들은 사실 ε와 ο(επεστατε, μισθομεν)로 쓰였다. 그래서 ει와 ου가 명백하게 단모음일 때 그것들은 “남아도는 이중모음들”이라고 불리운다.

앗티카 지방과 그리고 다른 많은 알파벳들의 경우에 모음 기호 η(H)와 ω(Ω)는 있지 않았다. 그러한 알파벳들의 경우에는 E가 세 가지 소리들, 즉 ε(φέρω에서처럼)와, ē(επεστατε에서처럼)와, 그리고 저 문자가 도입됐을 때 η로 쓰였던 다른 종류의 ē(ανεθεκε, 후에 ανεθηκε)를 나타냈다. 비슷하게 o도 ο(φερομεν)와 ō(μισθομεν)과 그리고 후에 ω로 쓰여진 다른 ō(δορον 후에 δωρον)를 나타냈다.

그러나 ει와 ου는 항상 남아도는 이중모음이 아니었다. εἶμι(“I shall go”)에서의 ει 는 최소한도 그 근원에 있어 이중모음이다(Lith. einù, “I go”, Lat. ei-o로부터 e[y]o를 거쳐 eo, ei-tur로부터의 i-tur; Gr. ἴμεν은 e를 빼앗긴 i-요소). εἰλήλουθα의 υ는 ἦλυθον에서와 동일하다. 그래서 ου는 여기에서 그 근원에 있어 진짜 이중모음이다. 초기 비문드에서 ει와 ου는 어떤 낱말들에서는 고정됐지만 ε와 ο로 교체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εἶπε, (δοκέ-ει로부터)δοκεῖ, πρεσβεία, πειθομένοις, ἔπει(ἔπος의 여격), ἐπεί(“when”), εἰ, ἀτέλεια, οὐκ, οὐδένοσ가 꾸준한 스펠링들이다 물론 후의 “남아도는 이중모음들”의 자리에 단지 ε와 ο만을 지니는(ἔναι, τρεῖς, τὸ, Διὸς, τὸ Ὀλυμπίο, οἰκόντες, 등) 비문(W.Dittenberger, Sylloge³ 64)들에서 조차 엑센트를 지니지 않고 말이다. 그래서 초기 비문들은 때로 다른 어떤 길에서도 도달할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저 οὐκ, οὗτος, εἶπε와 φέρεις φέρει는 진짜 이중모음을 지닌다.

남아도는 이중모음은 때로 자신들의 기원을 “보상적인 기어짐”으로 알려진 것에 둔다. πᾶς에서의 긴 ᾱ는 ν의 탈락을 보상하기 위해 (cf. gen. 소유격 παντ-ός와 비교하라 *παντ-ς로부터의) *πάνς의 ᾱ의 길어짐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래서 주격 *τιθέντ-ς는 *ριθένς가 된다. 그리고 나서 더 늦은 비문들에서는 τιθεσ, 후기 앗티카어에서는 τιθείς, 그리고 다른 어떤 방언들에서는 τιθήσ로 쓰여지는 τιθῆσ로 된다.(별표 *은 그 낱말이 재 구성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기원전 5 세기 말에, ε와 ο에 덧붙혀 모음 부호들 η와 ω를 소유했던 *이오니아 지역(Ionic)* 알파벳은 다른 그리스어 알파벳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했다. 기원전 403 년에 바로 이 *이오니아 알파벳*이 앗티카 알파벳 대신에 아테네에서 공식적으로 채용됐으며, 4 세기 말경까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 두루 사용됐다.

축약과 보상적인 길어짐으로부터 결과했던 ē와 ō는 기원전 4 세기에 모든 곳에서 동일한 길로 쓰여졌던 것은 아니다. 몇몇 방언들에서는, τελείτε, τιθείς, διδούς가 아니라 τελήτε, τιθής, διδώς가 발견된다. *도리아(Doric)* 지역에서는 이러한 스펠링들 양자(both, 兩者)가 발견된다(예를들어 동사 “to be”의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인 esmen으로부터 어떤 곳에서는 ἤμεν, 다른 곳에서는 εἶμεν). 방언들 사이에서처럼, 그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의 차이였다. 그러나 어떤 방언들에서는 글쓰기와 발음(모음의 질) 이 양자의 차이가 발생한 반면 다른 방언드에서는 단지 글쓰기의 차이만이 발생한다.

본디 이중모음과 남아도는 이중모음 사이의 구분은 심지어 그 이후 이오니아 알파벳의 일반적인 채용을, 선행하는 모음과의 축약 경우에 있어서, 그 자체 보여준다. 예를들어 본디 ει를 지니는 ὄρᾱεις ὄραῖις ὄρᾱις ὄραῖ(중세 수고들에서는 ὄρᾱς ὄρᾱ)로 된다. 그러나 남아도는 ει를 지니는 ὄράειν은 ὄρᾱν으로 된다. 비슷하게 οὐκέθ' ὁμῶς τιμῆς ἔσαι(일리아드 ix. 605)에서의 τιμῆς는 남아도는 ει(-Fεντ-ς로부터의 τιμῆ-[-F]εις; 소유격 -εντ-ος, 산스크리트어 -vant-를 비교하라)를 지니는 τιμήεις의 축약형이다. 그 수고들이 κοινίαλος ὄρνυτ ἀελλῆς를 지니는 곳인 일리아드 iii, 13에서, P.Buttmann의 추측 곧 마지막 단어는 ἀελλῆεις “eddying”의 축약이라는 것은 단지 (ἀελλῆς로)의 엑센트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그가 주장한 바대로, ἀελλῆς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대 그리스어의 연구는 글로 쓰여진 문서에 토대를 둔다. 그리고 텍스트 비평은 친필(autograph, 親筆)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들에는 그 친필의 현실적인 문자들을 회복하고 해석하는 것을 추구한다.

중세 수고들은 이오니아 알파벳으로, 그리고 기원전 3 세기의 그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 시대와 그리고 기원후 9세기와 10세기 사이 세기들의 경과를 보다 자주 보여주는 스펠링으로 쓰여진 텍스트들을 제공한다. 기원전 3 세기의 스펠링은 기원전 5 세기 (특히 그 세기의 시작) 또는 그 보다 더 이른 세기의 저자들에게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호메로스의 경우에 그 시들의 편찬은 그리스에서의 글쓰기에 관한 앎 보다 더 빨랐다. (Sophocles, Euripides, Aristophanes, Thuchdides와 같은) 위대한 많은 아테네인들은 기원전 5 세기 후반부에 글을 썼다. 비문들이 기원전 403년 전 수 십년 동안 아테네에서 사용됐다고 잘 증명했던 그 이오니아 알파벳을 그들은 사용했으리라. 5 세기 전반부에 글을 썼던 Aeschylus는 6 세기와 5 세기의 앗티카 꽃병에 그려진 초기 서정(lyrics, 絃情)시들의 단편들을 이용하여 아주 잘 앗틱 알파벳을 사용했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Theoginis, Alcman, 등 등의)

가장 오래된 책들의 경우에 그 오랜 스펠링들이 가장 오래 생존했으리라.

이런 관점으로부터 보면 호메로스 시들의 연구는 명백한 결과들로 이끌렸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그리이스의 가장 오래된 알파벳에 있어서의 ϵ 와 o 는 \bar{e} 와 \bar{o} (“여분의” ϵi 와 ou)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리고 보다 후의 실천이 단일한 자음을 겹쳐 쓰는 곳에서 그 자음이 쓰여졌다($\acute{\alpha}\lambda\omicron\gamma\lambda\omega\sigma\omicron\varsigma = \acute{\alpha}\lambda\lambda\omicron\gamma\lambda\acute{\omega}\sigma\sigma\omicron\upsilon\varsigma$). 이러한 양자의 특색들은 기원전 6 세기의 밀레토스 비문에서 $\tau\epsilon\iota\chi\iota\omicron\sigma\eta\varsigma$ (= $\tau\epsilon\iota\chi\iota\omicron\upsilon\sigma\eta\varsigma$)로 보여진다. $\kappa\alpha\iota\rho\omicron\sigma\acute{\epsilon}\omega\nu$ δ' $\acute{o}\theta\omicron\nu\acute{\epsilon}\omega\nu$ $\acute{\alpha}\pi\omicron\lambda\epsilon\acute{\iota}\beta\epsilon\tau\alpha\iota$ $\acute{\upsilon}\gamma\rho\omicron\nu$ $\acute{\epsilon}\lambda\alpha\iota\omicron\nu$ (오딧세이 vii, 107) 라인에서의 $\kappa\alpha\iota\rho\omicron\sigma\acute{\epsilon}\omega\nu$ 는 아주 드물어서 6 세기 암송시인(rhapsodes)들이 자신들의 쓰여진 호메로스 텍스트들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단어인 $\kappa\alpha\iota\rho\omicron\upsilon\sigma\acute{\epsilon}\omega\nu$ 의 시원적인 스펠링이다. 이런 길에서 그 스펠링은 현대화를 모면했다. 일리아드 xx, 234의 수고들에서 주어진 단어 $\acute{\alpha}\nu\eta\rho\acute{\epsilon}\iota\psi\alpha\nu\tau\omicron$ 는 Pindar의 환희의 찬가에서의 $\acute{\alpha}[\nu\alpha]\acute{\rho}\acute{\epsilon}\psi\alpha\tau\omicron$ 와 헤시오도스(Theog. 990)의 수고들에서의 $\acute{\alpha}\nu\alpha\rho\epsilon\psi\alpha\mu\acute{\epsilon}\nu\eta$ 형식들에서 알려진 바 대로 $\acute{\alpha}\nu\eta\rho\acute{\epsilon}\psi\alpha\nu\tau\omicron$ 을 잘못 쓴 것이다. 일리아드 vii, 434에서의 $\acute{\epsilon}\gamma\rho\epsilon\tau\omicron$ 는 “gathered, assembled,”를 의미하며 그리고 (후에 $\acute{\eta}\gamma\rho\epsilon\tau\omicron$ 로 쓰여진) $\acute{\alpha}\gamma\epsilon\acute{\iota}\rho\omega$ 의 부정과거의 시원적인 스펠링이다. 그것은 $\acute{\epsilon}\gamma\epsilon\iota\rho\omega$ ($\acute{\epsilon}\gamma\rho\epsilon\tau\omicron$ “arose”)의 부정과거를 잘못 쓴 것이다. 이러한 잘못에 그것의 보존이 기인한다. 일리아드 v. 293, $\acute{\alpha}\iota\chi\mu\acute{\eta}$ δ' $\acute{\epsilon}\xi\acute{\epsilon}\lambda\upsilon\theta\upsilon$ (“came out”) $\pi\alpha\rho\acute{\alpha}$ $\nu\epsilon\iota\alpha\tau\omicron\nu$ $\acute{\alpha}\nu\theta\epsilon\rho\epsilon\omega\nu\alpha$ 에서 그 시인은 분명히 늘어난 $\acute{\epsilon}\xi\acute{\eta}\lambda\upsilon\theta\epsilon$ 에 상응하는 늘어나지 않은 형식인 $\acute{\epsilon}\xi\acute{\epsilon}\lambda\upsilon\theta\epsilon$ 을 의미한다. 그것은 $\acute{\epsilon}\kappa\lambda\acute{\upsilon}\omega$ 의 부정과거 수동을 닮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운율(metre, 韻律)은 마지막 자리에 긴 모음을 요구하므로, 그것은 $\acute{\epsilon}\xi\acute{\epsilon}\lambda\upsilon\theta\eta$ 로 됐다.

방금 주어진 두 본보기들($\acute{\epsilon}\gamma\rho\epsilon\tau\omicron$, $\acute{\epsilon}\xi\acute{\epsilon}\lambda\upsilon\theta\eta$)는 H가 아니라 대신에 E를 소유했던 알파벳으로 호머는 글을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어떤 지시들은 그 시들이 단지 구전(oral transmission, 口傳)으로만 존재했으며 아직 글로 쓰여지지 않았을 때를 가리킨다. R.Bentley는 그 운율의 많은 불규칙함들은 그 시들의 편찬 시기에의 언어가 소리 ω (방언 비문들에서는 F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그 어느 호메로스의 수고들에서도 쓰여지지 않은)를 소유했다. J.Wahtmough는 다른 운율적인 비규칙함들을 설명해내는 인도유럽어의 후두(laryngeal, 後頭)음들의 잔여물들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디감마(F)의 흔적들은 선행모음의 길어짐들(예를들어 $\kappa\acute{\alpha}\lambda\acute{o}\varsigma$ 는 실제로 $\kappa\alpha\lambda F\acute{o}\varsigma$ 이다—이런 형식은 기원전 7 세기의 Boeotian 비문에서 발생한다)과 그리고 hiatus(모음연속)(예를들어, $\acute{o}\pi\alpha$ $\acute{\alpha}\rho\nu\acute{\omega}\nu$ 일리아드 iv. 435—방언비문들은

Φαρήν(Φαρνός)을 지닌다)으로 구성된다. 외면적인 불규칙함들은 초기 작곡가들이 소리 ω로 말했으며 다른 것들은 보다 후에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후 두음(H)에 관련하여 그것은 μ-(더 이른 μ는 아니다) 앞에서 길어짐에서 그리고 H를 맨 처음에 지니는 단어 앞에서의 hiatus에서 생존한다.

일리아드 xxiv. 154에서의 ὄς ἄξει에는 운율적으로 그리고 감각의 옷점에서 모두 결합이 있다. 그에 병행하는 ὄς σ' ἄξει(183 행)은 그 시인이 Fhε가 앳틱 ξ(도리아 적 Fε와 Pamphylian Fhε는 비문들에서 발견된다)의 보다 더 오래된 형식인 곳인 154 행에서 ὄς Fh' ἄξει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들 중 여러 번인) 그러한 경우는 그 소리, 호메로스에 있어서의 w의 실재성을 선명하게 한다. 호메로스의 수고들에서 발견되는 그 스펠링은 여러 측면에서 비근원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ἔστην의 일인칭 복수 접속법은 그 분석이 요구하는 바 대로 στήομεν 대신에 στείομεν(일리아드 xv, 297)로 쓰여진다(이오니아 어로는 στη-로 주어지는 그 어근은 στᾱ이다. 라틴어 stāre와 비교하라). (-νο-에서 -ω-로의 규칙적인 변화—βασιλῆος: βασιλέως를 비교하라—에 의해 생겨나는) 후기 이오니아 형식 στέωμεν은 일리아드 xi, 348에서 발생한다. 암송자들은 일리아드 xi, 348의 그것들의 쓰여진 텍스트들에서 στεομεν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ε를 (보여졌던 것처럼 그들이 ει로 썼던) ē로 길게 했다. 생생한 형식은 στέωμεν이었으므로 σρεομεν이 오랜 길 동안 στήομεν이라고 쓰였다는 것은 그들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ηο- 라는 그룹은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낱말들에서 -ειο-로 쓰여졌다.

εἰνάτερες 라는 낱말은 Herodian에게는 εἰνάτηρ의 복수라고 믿어졌다. 그러나 비문들은 그 남성 단수는 ἐνάτηρ였으며 그리고 εἰνάτερες는 εἰ가 y- 자음을 맨 처음에 서 발설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모음적인 길어짐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했다. 다시 여기에서 ε의 길어짐은 그것의 텍스트에로의 도입이 기원전 4 세기 보다 거의 더 늦을 수 없는 가짜의 이중모음에 의해서 표현된다. 진짜 오래된 자음(후두)음들로부터 결과하는 ει와 ου의 다른 보기들은 εἰν ἀγορῆ, οὐλόμενος, Οὐλύμποιο와 많은 다른 것들이다. 그것의 ὀρώωντες, ὀράασθαι이 더 오래된 ἄο, ἄε가 οω와 ᾱα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본들인 많은 형식들이 방언적인 비문들에 병행하는 어떤 것들로 지녀지지 않는다. (글쓰기에 있어서든 또는 구전적인 시작(oral composition, 時作)에 있어서든) 시인들은 ὀράοντες, ὀράεσθαι 라는 형식들을 반드시 사용했다. 전달의 과정에서 후에 축약된 형식들인 ὀρώντες, ὀράσαθι은 교체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운율은 암송자들로 하여금 각기 경우에 (축약으로부터 결과하는) 앞에 그 짧은 형식(o, α)을 덧 붙임에 의해서 ὀρώωντες와 ὀράασθαι로 축약된 형식을 “벗어나도”(pull

out)를 다그쳤다. 생존하지 않았던 *ναϊετάει*(후기 그리스어에는 *ναϊετᾶ*가 있지 않다)와 같은 그런 형식들은 이런 현대화 하는 경향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

2-3-2)방언의 다양함.

알파벳과 스펠링의 다름들과 구분되는 것이 다른 장소들에서 말해지는 언어 형식들 사이의 다름들, 즉방언의 다름들이다. 방언들에 관한 앎은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3세기의 비문들로부터 과생된다. 아테네인들이 권력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시기부터는 앗티카 방언이 다른 방언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문서들은 앗티카가 아닌 요소들과 앗티카적인 요소들의 혼합을 보여준다. 보다 후의 세기들에서는 비문들에서 방언들의 사용의 재흥(*revival*, 再興)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의 인위적인 특성은 초기비문들이 오랫동안 폐기됐다는 것을 보여준 형식들이(예를들어 후기 Boeotian 비문들에서의 *ῥαψιάφυδος* (= *ῥαψιφῶδος*.) 그것들에게 현재한다는 것에 의해 증명된다. 반면에 더 이른 보에티아 비문들은 모음들 사이의 *F*는 오래 동안 상실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방언들로 쓰여진 문어적인 문서들은 비문들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이다 그래서 어떤 길들에서는 특히 어휘를 위해서 더 교육적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Hipponax, Hippocrates와 Herodotus와 같은) 수고 전통에 있어서의 다양함은 단지 비문들은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인 어려움들로 구성된다. 사실 비문들은 예를들어 헤로도토스의 수고들로부터의 소위 *ν* *ἑφελκυστικόν*의 꾸준한 부재는 이오니아 방언의 특색이 아니라 몇몇 알려지지 않는 고대의 기준(*critic*, 基準)에 의한 비지성적인 편집의 결과라는 사실의 발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들 중에서 집어듬에 있어 가능한 보다 더 큰 확실성을 지닌다. 이오니아 비문들은 앗티카 보다 더 심지어 큰 풍부함 속에서 이런 *ν*를 지닌다. (앗티카 방언이 *ἑποίει*를 지니는 곳에서 이오니아 방언은 *ἑποίηεν*).

주요 방언들은 ㄱ)앗티카(Attic)가 그것의 하위 방언인 Ionic; ㄴ)Aeolic; ㄷ)Arcadian과 Cyprian; ㄹ)Doric.이다.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의 지역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Ionic*은 소아시아의 해변의 주요 부분과 많은 에게해 섬들과 Euboea와 Chalcidian 반도와 (앗티카 형식에서의) Attica. *Aeolic*은 Lesbos를 포함한 Adiac 해변(Aeolis)의 북쪽 부분에서 그리고 (도리아어와 뒤 섞어진) Thessaly와 Boeotic에서 말해지는 방언들의 집단적인 이름이다. *Arcadian*과 *Cyprian*은 그것들이 말해지는 장소들로부터 이름이 왔다. 그 장소들 사이의 커다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밀접한 유사함의 인식은 아르카디아와 사이프러스 비문들의 발견으로부터

결과하는 그리고 19세기 70년 대와 80년 대의 사이프러스 음절의 해독으로부터 오는 놀라움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다양함들 중에서도 *Doric*은 (Arcadia를 제외하면) Peloponnese에서 그리고 (Locris, Phocis, Epirus 등의) 북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특히 Thera, Crete, Cos, Rhodes의 보다 더 남부 에게해 섬들에서 그리고 소 아시아의 이웃 부분들에서 말해진다.

식민주의 자들은 그들과 함께 어머니 도시의 방언을 취한다. 이오니아 방언은 사회 해변의 여러 밀레시안 정착인들에게서 말해지며, 도리아 방언은 Syracuse와 그리고 Sicily에 있는 다른 도리아인의 건설지들에서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에서 말해진다.

개관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은 그것들이 알려진 가장 초기 시대의 그리스 방언의 지리학적인 분포이다. 더 이른 시기의 주요한 증거는 그리스 역사가들(특히 헤로도토스와 Thucydides)의 그것이다. 이들로부터 초기에 그 전에 테살리에서 보에티아 에로의 다른 이민이 쇄도했던, Epirus로부터 그 테살리의 Aeolic 땅으로의 이민이 있었다는 것을 배운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 때, 보다 후기의 Boeotians은 아직 Boeotia에 없었다. Herodotus와 Strabo와 Pausanias는 Cynuria에 그리고 Saronic 만의 해변에 이오니아인들의 이른 현재에 관해 말한다. 폐쇄된 땅의 아르카디아 방언과 떨어진 사이프러스 방언 사이의 유사함은 아르카디아는 한 때 Taenarum 곳 멀리 남쪽에서까지 말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덜 놀랍다. 이것은 거기에서 벌어졌던 Poseidon에로의 축제의 이름, 즉 Ποσειδαια에 의해서 증명된다. 역사 시대에 Taenarum의 방언은 모음들 사이의 σ가 h로 됐던 Laconian(Doric)이었다. 따라서 Ποσειδαια는 Ποσειδαια의 라코니아화된 형식이다 그리고 아르카디아 비문은 Ποσειδοαν이 신의 아카디아적 이름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르카디아 어는 한 때 펠로폰네소스에서 두루 그리고 아마 여전히 더 넓은 지역에서 그 지역이 도리아 이주에 의해 압도 당하여 닫혀지기 전에 말해졌다고 추론할 수 있으리라.

/2-3-2-1) 방언의 분류.

그 역사의 가장 초기에 알려진 그리스어는 방언들로 나뉘었다., 심지어 비록 여전히 더 이른 시기 동안 공정하게 하나된 그리스어의 존재가 추정될수 있을 지라도 말이다. 주로 문어(literary language, 文語)에 관련되는 이 문법서(H.W.Smyth, Greek Grammar, 1984(1920), Harvard University Press, p.2)에서는 그 방언들을 Aeolic과 Doric과 Ionic(*Attic*은 Ionic의 자매-방언이다)으로 전통적으로 차이짓는 것이 유

지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Starbo(8.333) 보다 더 이르지 않더라도 말이다. Aeolic과 Doric은 어느 하나가 Ionic과 관계 맺는 것 보다 더 훨씬 더 서로에 매우 가까이 관계된다. 이런 그룹화들은 *Aeoleans*와 *Dorians*와 *Ionians* 라는 (호메로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나눔인) 그리이스 주요한 부족적인(ethnic)나뉘임들에 상응한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이스 방언들에 관한 연구는 수 많은 방언 비문들의 발견에 의해서 부유해지고 복잡해졌다. 이것들은 방언들의 대부분이 문학(Literature)에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문어적인 기록물(literary monuments, 記録物)로부터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언어학적인 다양함을 드러낸다. 비록 동부 그리이스와 서부 그리이스 로의 근본적인 나눔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분류화는 공정하게 복잡하다. 동부 그리이스어는 Attic-Ionic그룹과 Arcado-Cyprian그룹과 Aeolic그룹으로 구성되는 반면 서부 그리이스어는 북서 그리이스 그룹과 Doric그룹으로 구성된다(더 세부적인 분류(breakdown, 分類)를 위해서는 C.D.Buck, The Greek dialects를 보라).

2-3-2-1-1)Aeolic: Aeolis, Lesbos에서 말해지며, 그리고 (Phthiotis 제외)Thessaly와 (비록 Boeotian은 많은 도리아적 요소들을 지니지만)Boeotia의 방언에 가깝다(kindred with). 이 책에서 ‘Aeolic’은 Lesbian Aeolic을 뜻한다.

아이올릭 방언은 원시적인 \bar{a} 를 보존한다($\phi\acute{\alpha}\mu\alpha$). 그러나 앳티카 방언은 그 초기 시기의 본디 \bar{a} 대신에 η 를 지닌다($\phi\acute{\eta}\mu\eta$ report; 라틴어 *fāma*). 마찬가지로 이오니아 방언도 앳티카처럼 본디 \bar{a} 대신에 η 를 지니나, 도리아 방언은 아이올릭과 마찬가지로 본디 \bar{a} 를 그대로 유지한다. 나아가서 [보통 모든 방언들에서 공통적으로]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것에 의해서 $-\alpha\nu\sigma-$, $-\alpha\sigma\lambda-$, $-\alpha\sigma\mu-$ 가 $-\bar{a}\sigma-$, $-\bar{a}\lambda-$, $-\bar{a}\mu-$, 그리고 $-\bar{a}\nu-$ 이 되는 초기 보상적인 길어짐의 결과인 \bar{a} 에 관해서도 진실이다. α 는 그것의 어간들이 λ , ρ , 또는 ν 로 끝나는 동사들의 σ -부정과거(aorist)에 있어서 ι 또는 ρ 가 그것에 선행하지 않을 때 보상적으로 길어져 η 로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cute{\epsilon}\phi\alpha\nu-\sigma\alpha$ 는 $\acute{\epsilon}\phi\eta\nu\alpha$ I showed로 된다. 그러나 $\acute{\epsilon}\pi\epsilon\rho\alpha\nu-\sigma\alpha$ 는 $\acute{\epsilon}\pi\acute{\epsilon}\rho\bar{\alpha}\nu\alpha$ I finished로 된다. 그래서 $\sigma\epsilon\lambda\alpha\sigma-\nu\eta$ 대신에 $\sigma\epsilon\lambda\acute{\eta}\nu\eta$ ($\sigma\acute{\epsilon}\lambda\alpha\varsigma$ gleam).

또, 아이올릭 방언은 ι 앞의 τ 가 σ 로 된다. [보통 모든 방언들에서 공통적으로] 끝 모음 ι 앞의 τ 는 σ 로 된다. 그래서 $\tau\acute{\iota}\theta\eta\tau\iota$ 대신에 $\tau\acute{\iota}\theta\eta\sigma\iota$ places, $\pi\lambda\upsilon\tau-\iota\omicron\varsigma$ 대신에 $\pi\lambda\upsilon\tau\acute{o}\sigma\varsigma$ rich (cp. $\pi\lambda\upsilon\tau\acute{o}\varsigma$ wealth). 만약 끝 ι 앞에 $\nu\tau$ 가 올경우 ν 은 탈락하면서 τ 가 σ 로 바뀐다. $\acute{\epsilon}\chi\omicron\nu\tau\iota$ 대신에 $\acute{\epsilon}\chi\omicron\upsilon\sigma\iota$ they have.

또, 아이올릭 방언은 퇴행적인(recessive) 엑센트를 지닌다. 울티마의 양이 허락하는 한—본디 울티마가 길 경우 안티 페널트에는 엑큐트가 페널트에는 서컴플렉

스가 올 수 없다— 낱말의 끝에 붙으려 할 경우 이를 엑센트의 퇴행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아이올릭 방언은 전치사들과 접속사들을 제외한 모든 낱말들에서 퇴행적인 핵센트를 지닌다. 그래서 $\sigma\phi\omicron\varsigma$, $Z\epsilon\upsilon\varsigma$, 즉 $Z\acute{\epsilon}\upsilon\varsigma$,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lambda\acute{\iota}\pi\epsilon\iota\nu(=\lambda\iota\pi\epsilon\acute{\iota}\nu)$, $\lambda\acute{\iota}\pi\omicron\nu\tau\epsilon\varsigma(=\lambda\iota\pi\acute{\omicron}\nu\tau\omicron\varsigma)$, $\acute{\alpha}\mu\mu\epsilon\varsigma(=\acute{\eta}\mu\iota\epsilon\acute{\iota}\varsigma)$. 이 밖에서도 아이올릭 방언은 여러 많은 다른 특색들을 지닌다.

거의 모든 시에서는 여러 방언들이 뒤섞여 사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아이올릭 방언들이 주로 사용된다: *Alcaeus*와 *Sappho*(기원전 600년)와 같은 Lesbian 서정시인들. 많은 Aeolisms이 서정시에서 그리고 몇몇 비극에서 나타난다. *Theocritus*의 idylls 28-30은 아이올릭 방언으로 쓰여있다.

2-3-2-1-2)Doric.

(Arcadia와 Elis를 제외한) Peloponnesus와 (Crete, Melos, Thera, Rhodes 등의) 여러에게 해 섬들과 그리고 Sicily의 부분들과 남부 이탈리아에서 말해졌던 도리아 방언은 아이올릭 방언처럼 원시적인 \bar{a} 를 보전한다 그러나 아이올릭 방언과는 달리 i 앞에서 τ 를 자주 유지한다($\tau\acute{\iota}\theta\eta\tau\iota$, $\xi\chi\omicron\nu\tau\iota$). 그렇다고 다른 방언들의 $\sigma\epsilon$ 가 도리아적인 $\tau\acute{\epsilon}$ (cp. Lat. te)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sigma\acute{\omicron}\acute{\iota}$ 가 도리아적인 $\tau\acute{\omicron}\acute{\iota}$ 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도리아 방언들은 $\mu\epsilon\nu$ 대신에 $-\mu\epsilon\varsigma$ 를 지닌다. 다른 방언들의 동사 인칭어미들과는 달리 도릭(doric)은 $-\sigma\iota$ 대신에 $-\tau\iota$, 3인칭 복수에서 $-\mu\epsilon\nu$, $-\nu\tau\iota$ 대신에 $-\mu\epsilon\varsigma$, 그리고 $-\tau\eta\nu$, $-\sigma\theta\eta\nu$, $-\mu\eta\nu$ 대신에, 아이올릭에서처럼, $-\tau\bar{\alpha}\nu$, $-\sigma\theta\bar{\alpha}\nu$, $-\mu\bar{\alpha}\nu$ 을 지닌다.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 사이의 밀저한 일치는 고대 그리스어와 도릭 방언과 산스크리트 사이의 동사활용에 의해서 예시될 수 있으리라.

직설법1인칭단수1차시제		직설법1인칭복수1차시제		직설법1인칭단수2차시제		직설법1인칭복수2차시제	
$\phi\bar{\alpha}-\mu\acute{\iota}$	$bh\acute{a}-mi$	$\phi\check{\alpha}-\mu\acute{\epsilon}\varsigma$	$bh\bar{a}-m\acute{a}\varsigma$	$\xi\phi\epsilon\rho\omicron-\nu$	$\acute{a}bhara-m$	$\acute{\epsilon}\phi\acute{\epsilon}\rho\omicron-\mu\epsilon\nu$	$\acute{a}bhar\bar{a}-ma$
$\phi\acute{\alpha}-\varsigma$	$bh\acute{a}-si$	$\phi\check{\alpha}-\tau\acute{\epsilon}$	$bh\bar{a}-th\acute{a}$	$\xi\phi\epsilon\rho\epsilon-\varsigma$	$\acute{a}bhara-s$	$\acute{\epsilon}\phi\acute{\epsilon}\rho\omicron-\tau\epsilon$	$\acute{a}bhara-ta$
$\phi\bar{\alpha}-\tau\acute{\iota}$	$bh\acute{a}-ti$	$\phi\check{\alpha}-\nu\tau\acute{\iota}$	$bh\acute{a}-nti$	$\xi\phi\epsilon\rho\epsilon-(\tau)$	$\acute{a}bhara-t$	$\xi\phi\epsilon\rho\omicron-\nu(\tau)$	$\acute{a}bhar\bar{a}-n(t)$
직설법1인칭쌍수1차시제				직설법1인칭쌍수2차시제			
$\phi\check{\alpha}-\tau\acute{\omicron}\nu$	$bh\acute{a}-th\acute{a}\varsigma$			$\xi\phi\epsilon\rho\epsilon-\tau\omicron\nu$	$\acute{a}bhara-tam$		
$\phi\check{\alpha}-\tau\acute{\omicron}\nu$	$bh\bar{a}-t\acute{a}\varsigma$			$\xi\phi\epsilon\rho\acute{\epsilon}-\tau\eta\nu$	$\acute{a}bhara-t\bar{a}m$		
Doric $\phi\bar{\alpha}\mu\acute{\iota}$ say		Skt. $bh\acute{a}mi$ shine, $\xi\phi\epsilon\rho\omicron\nu$				Skt. $\acute{a}bharam$ bore	

또, 도리아 방언은 자신의 부정과거수동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으로 *-ναι*가 아니라 *-μεν*을 지닌다(예를들어 *αἰσχυθῆμεν*). 이 경우, *-μεν* 앞에는 짧은 모음이 오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모음 앞에 *-μεν*이 온다. 아이올리아 방언의 경우 현재와 제2 부정과거 부정형에서는 *-ην*가 나타난다.

또, 도리아 방언의 미래는 *-σῶ, σοῦμαι*이나, *-ζω*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ξω*이다. 도릭 미래의 활용형은 아래 도표와 같다. *-σέω*로 끝날 것을 *-σῶ*로, *-σέομαι*로 끝날 것을 *-σοῦνται*로 되기 때문에 도릭 미래라고 불리운다. *-ζω*로 끝나는 동사의 미래형 *-ξω*의 예로는 *χωρίζω* separate의 미래형 *χωριξῶ*

λῦσῶ	λῦ-σοῦμαι	λῦσοῦμες	λῦ-σοῦμεθα	λῦσῶν	λῦ-σοῦμενος
λῦσεῖς	λῦ-σῆ	λῦσεῖτε	λῦ-σεῖσθε	λῦσῶν	λῦ-σεῖσθαι
λῦσεῖ	λῦ-σεῖται	λῦσοῦντι	λῦ-σοῦνται		

Laconia, Crete, 그리고 남부이탈리아의 그리고 여러 식민지들의 하위-방언들은 자주 엄한(*severer*) 또는 고대(*old*) 도리아어 라고 불리우며, 다른 하위-방언들은 온건한(*Milder*) 또는 신(*new, 新*) 도리아어라고 불리운다. 온건한 도리아어가 *ει*와 *ου*를 지니는 곳에서 엄한 도리아어는 *η*와 *ω*를 지닌다. 동사 형식들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엄한 (그리고 더 이른) 도리아어 *εε*의 *η*로, *οε*, *οο*의 *ω*로의 축약. 그래서 *φιλέετω*로부터의 *φιλήτω*, *δηλόετε*로부터의 *δηλώτε*, *ἵππο-ο*로부터의 *ἵππω*. 그러나 온건한(그리고 더 후예의) 도리아어 *ει*, 와 *ου*로의 축약. 아이올리아 방언은 엄한 도리아 방언에 일치한다.

주로 도리아 방언으로 쓰여지는 문학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많은 서정시인들 중에서 Pindar(기원전 522 년에 태어남)의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약 기원전 310~약 245년의)Theocritus의 전원적인(목가적인) 시. 이 시인들 양자는 어딘 서사시적인 그리고 Aeolic 형식을 채용한다. 마찬가지로 Attic 비극의 합창 부분들도 Doric 형식들을 인정한다. 아이올리아 방언으로 쓰여진 문어적인 산문이 없듯이 도리아 방언으로 쓰여진 문어적인 산문도 없다.

2-3-2-1-3)이오니아어.

이오니아에서, 예게 해 대부분의 섬들에서, Sicily의 몇 몇 도시 등 등에서 말해진 이오니아어는 원시적인 *ā*를 *η*로 변화시킨다. 이것 그리고 *ι* 앞의 *τ*가 *σ*로 변환

다는 것[은 이미 아이올리아 방언 관련 항목에서 설명했다. 전자는 경우에는 서로 다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오닉과 아이올릭 모두 같다는 점에 유의할 것].

나아가서, 아이올릭과 도릭에서는 살아 있던 디감마(F)를 이오니아 방언은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이오닉은 축약을 자주 거부하며, 거친 기식 앞에서 폐쇄음 연 기식을 유지한다. 그래서 새로운 이오니아 방언은 일반적으로 강기식 앞에서 π, κ, τ를 남겨놓는다: ἀπ' οὐ, μετλήμι, τῷτερον. 그러나 복합어에서는 φ, χ, θ가 나타날 것이다: μέθοδος Method (μετά after + ὁδός way).

또, 아이올릭 방언은 대명사 형에서 π대신에 κ를 지닌다. κότε when, κότερος which of two? ὄκως, κόσος, κῆ.

호메로스와 (기원전 700 년 전의) 헤시오도스의 주요 구성 방언인 1)고대 이오니아어 또는 서사시. 거의 모든 연이어지는 시(poetry, 時)는 서사시어(epic words, 敘事詩語)와 형식들을 인정한다. 2)새로운 이오니아어(500-400년)는 Herodotus (484-425)과 의학적 저술가 Hippocrates(기원전 406 년에 태어남)의 방언이다. 고대 이오니아어와 신(new, 新) 이오니아어 사이에는 (약 기원전 700-650 년) 서정시인 Archilochus가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여진 것처럼 어떤 방언들은 전통의 세 겹 나뉘에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다. Arcadian과 Cyprian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아마 그 펠로폰네소스 대부분의 도리아 이전의 말을 나타낼 것이다. 이 그룹은 기원전 약 1400~1200 년(Pylos) 그리고 이 보다 더 이른 날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Pylos, Mycenae, 그리고 Cnossus로부터의 Cretan 스크립트(소위 선형문자 B)로 쓰여진 점토판들의 아주 최근의 부분적인 해독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거슬러올라가는 날짜에 대한 탐구는 이런 아주 초기의 비문들의 방언은 Acrado-Cyprian의 보다 이른 무대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간 탐구는 그리스어의 가장 초기의 역사에 두드러진 빛을 던져줄 것이다.

(Phocian, Locrian, Elean, 그리고 Aetolia의 공통 방언과 Aetolian League의 지배 하의 다른 지역들의 공통 방언 등의) 북서 그리스어는 비록 도리아어에 아주 근접하는 유사성을 보여주기에는 해도 다른 그룹을 따로 형성한다.

ᾱ를 유지하는 방언들은 Ᾱ (아~)방언들(Aeolic, Doric, 등 등)라고 불리우는 반면 Ionic과 Attic은 단지 H (에애)방언들이라고 불리운다. (Aeolic, Ionic) 동쪽 방언들

은 τι에서 οι로 변한다

지방 방언들은 점차적으로 죽어가다가 기원후 300 년 경 존재하기를 그치면서, 대부분 고대 Laconian으로부터 파생된 (여전히 Laconia의 작은 지역에서 말해지는) Taskonian 이라는 단일한 중요한 예외를 지닌 그 코이네로 각기 도처에서 갈아치워진다.

2-3-2-1-4)앗티카어.

Attic 방언은 그것의 정제됨과 정확함과 아름다움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것은 부드러운 이오니아어와 거친 도리아어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을 확보했으며 그리고 다른 방언들의 극단적인 발음들을 회피했다. 기원전 500 년에서 기원전 300 년 사이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들의 손에서의 그 경작(cultivation, 耕作)에 의해서 그것은 문어적인 방언의 표준이 됐다 비록 고대 이오니아어가 여전히 종종 이후의 서사시에서 사용됐고 도리아어가 목가적인 시에서 사용됐지만 말이다.

비극 시인들과 **Thucydides**의 방언은 다른 대부분의 앳틱 저술가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인 New Attic과 대조되는 Old Attic이라고 자주 불리워진다. 플라톤은 그 경계-선에 서 있다. 비극의 방언들은 어떤 Homeric과 Doric과 Aeolic 형식들을 포함한다. 이런 형식들은 대화 부분 보다는 합창 부분에 더 자주 있다. 합창 부분들은 Aeolic-Doric 서정시에서 사용되는 형식들을 취하며, 대화 부분들은 이오니아인들의 단장(iambic, 약강)격 시(poetry, 詩)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앳틱 말의 경향은 어떤 문어적인 유형을 발원시키는 부족에 의해 사용된 방언의 영향으로부터 그 자체 자유로웠다. 그리고 기원전 4 세기 까지의 순수 Attic이 일반적으로 두루 사용됐다. 그 사람들의 정상적인 언어(“표준 앳티카어, standard Attic”)는 **Aristophanes**와 웅변가들에서 가장 잘 보여진다. 비문들에 나타나는 그 대로의 앳틱 모국어는 어떤 지역적인 다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앳티카어(the speech of Attica)는 실천적인 정형성을 띠었다. 그들중에 많은 외국인들이 포함된 단지 가장 낮은 부류들만이 일상적인 음성학적 법칙들을 따르지 않는 형식들을 사용했다. 종교 제의 언어는 때로 그 특성상 시원적(archaic, 始原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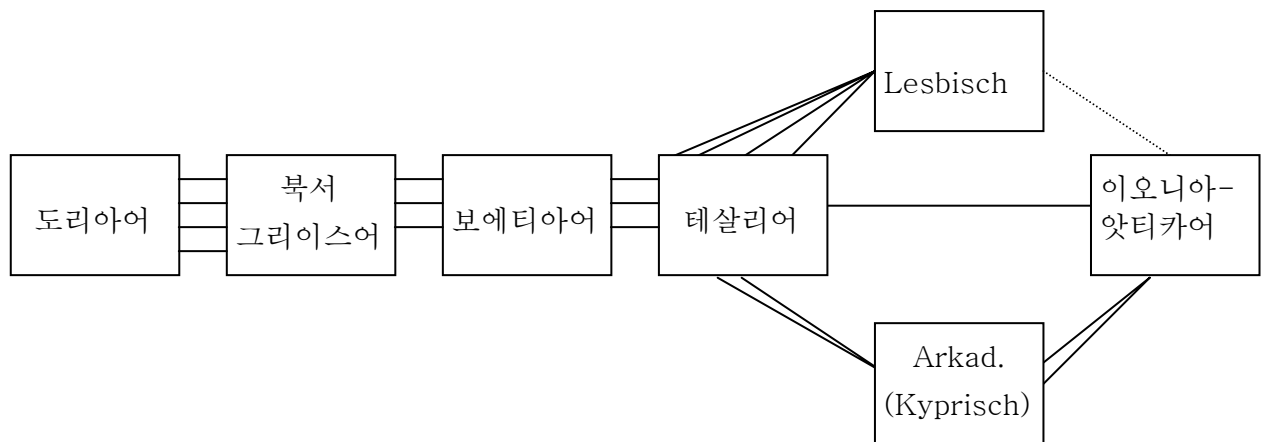
고대 앳틱 저술가들은 ττ 대신에 σσ를, ρρ 대신에 ρσ를, σύν with 대신에 ξύν을, εἰς into 대신에 ἐς를, εἰ 대신에 ἦ(λύει thou loosest 대신에 λύη를, -εύς로 끝나는 명사들의 복수에 -ῆς(βασιλῆς, 277)를, 그리고 종종 완료와 대과거의 3인칭 복수에 -αται와 -ατο를 사용했다

앗티카 방언은 이오니아 방언과 다른 대부분의 방언들의 $\sigma\sigma$ 대신에 $\tau\tau$ 를 지닌다. $\pi\rho\acute{\alpha}\sigma\sigma\omega$ 대신에 $\pi\rho\acute{\alpha}\tau\tau\omega$ do, $\theta\acute{\alpha}\lambda\alpha\sigma\sigma\alpha$ 대신에 $\theta\acute{\alpha}\lambda\alpha\tau\tau\alpha$ $\theta\acute{\alpha}\lambda\alpha\tau\tau\alpha$ sea, $\kappa\rho\acute{\epsilon}\iota\sigma\sigma\omega\nu$ 대신에 $\kappa\rho\acute{\iota}\tau\tau\omega\nu$ stronger. 그러나 비극과 Thuchydides는 Ionism으로서의 $\sigma\sigma$ 를 채용했다: $\chi\alpha\rho\acute{\iota}\epsilon\sigma\sigma\alpha$. 규칙적으로 κ 또는 χ 또는 ι 에 의해, 때로 τ 와 θ 와 ι 에 의해 형성되는 $\sigma\sigma$ 대신에 사용됐다

후기 앗티카어는 고대 앗티어의 $\rho\sigma$ 대신에 $\rho\rho$ 를 지닌다. $\theta\acute{\alpha}\rho\rho\omicron\varsigma$ courage = $\theta\acute{\alpha}\rho\sigma\omicron\varsigma$, $\acute{\alpha}\rho\rho\eta\nu$ male = $\acute{\alpha}\rho\sigma\eta\nu$. 그러나 $\rho\sigma$ 는 여격 복수($\rho\acute{\eta}\tau\omicron\rho\text{-}\sigma\iota$ orators)와 $-\tau\iota\varsigma$ 대신에 접미어 $-\sigma\iota\varsigma$ 를 포함하는 단어($\acute{\alpha}\rho\text{-}\sigma\iota\varsigma$ raising)에서는 $\rho\rho$ 로 되지 않는다. 이오니아어와 다른 대부분의 방언들은 $\rho\sigma$ 를 지닌다. 앗티 비극과 투키디데스에서의 $\rho\sigma$ 는 아마 Ionism일 것이다. Xenophon은 $\rho\sigma$ 와 $\rho\rho$ 를 지닌다.

마케도니아인들의 아테네 정복과 더불어 위대한 저술들의 생산이 중지됐다. 그러나 앗티 문화와 앗티 방언은 멀리 넓게 흩 뿌려졌다. 범위의 이런 확장과 더불어 앗티카어는 자신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실로 앗티카어는 (기원전 384~322년) Aristotle 안에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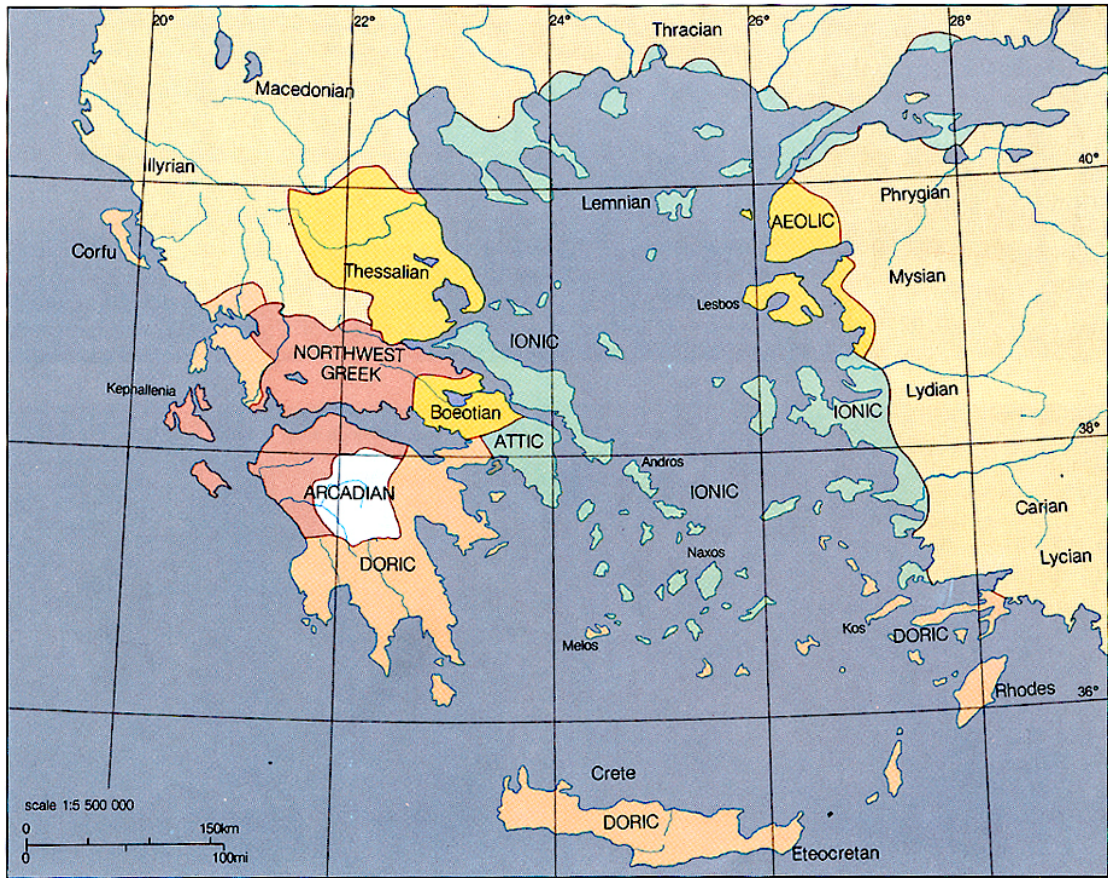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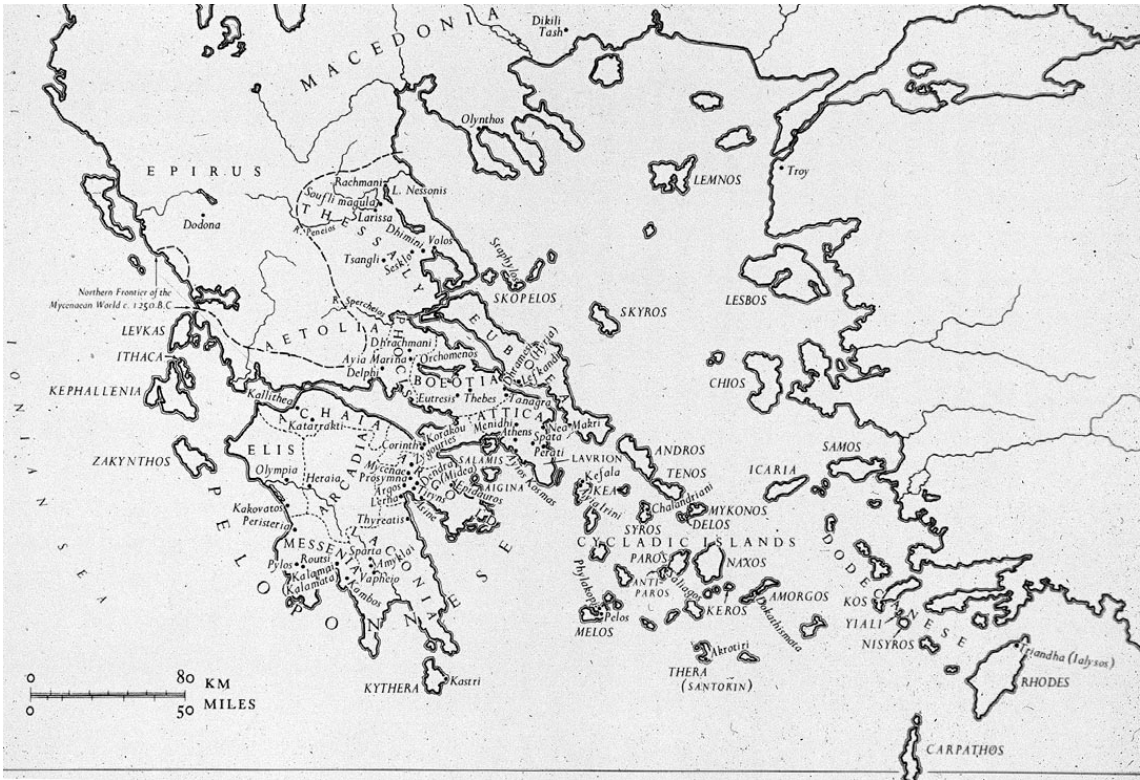
///개별 방언 그룹들과 방언들이 그것들의 친족성(Verwandschaft, 親族性)의 정도에 따라 묶여진다면 도리아어 한 쪽 끝에서부터 이오니아-앗티카 다른 쪽 끝까지 일종의 사슬을 형성할 것이다. 그 부분들이 다소간에 서로 함께 연관되면서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투리들의 사슬화는 연결선의 수가 도식적으로 친족성의 정도를 순수하게 나타내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투리(-그룹)들 사이의 관련은 역시 만약 사람들이 그것들의 분포 영역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방언특징을 서로 비교한다면 더 분명하게 맺어질 것이다. 이런 목적에 중요한 특징의 수를 가지고 주요 방언들을 에워싸는 아래 표의 개관은 봉사할 것이다. 이것은 도식적인 어떠한 것이다. 왜냐하면 앓티까어와 보에티아어 사이의 또는 단일한 도리아 방언과 중앙그룹들 IV, V, VI 사이의 접촉들과 같은 여러 개별성(Einzelheiten, 個別性)—예를들어 여러 도리아 방언들과 아르카디아 방언들에 있어서 -εν으로 끝나는 부정성(Infinitiv, 不定性)—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번호 1과 2는 각기 방언이 자신과 ‘가까운’(Nachbarn)관계를 맺는 한 쌍의 예를 나타내며, 3~16은 개별 방언 현상의 분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나타낸다. C.D.Buck The Interrelations of the Greek Dialects. Class. Philol. II(Chicago, 1907) 241 ff.와 더불어 비슷한 종류의 풍부한 도표들이 발견된다. 이것 및 46쪽에서 인용된 Buck의 책 s. 348ff.에서의 두 번째 표가 더 낫다.

	I	II	III	IV테살리아		V	VI	VII
	도리아어	북Griech	보에티아	서	동	Lesbisch	아르카디아	이오니아
1	φέφομες, τέτορες		η는 ει로, ἐγένονθο, γίνυμαι		δέκοτος			
2		καλείμενος		ἐμί		εί		
3	τοὶ			οἱ				
4	δίδωτι			1		δίδωσι		
5	αἰ					εἰ		
6	원시 그리스어 \bar{a}							η
7	αε는 η로		2		2		2 αε는 \bar{a} 로	
8	전치사의 어미음 탈락(Apokope)							거의드름
9	-αο가 \bar{a} 로					-αυ		-εω
10	부정사(Inf. 不定詞) τιθέμεν				τιθέμεναι		τιθέναι	
11	κὰ			κὲ			ἄν	
12	ἀν-			ὄν = ἀνά			(ἀνά)	
13	(φιλέω)		φίλημι				(φιλέω)	
14	(τείω)		πειώ st. τείω				(τείω)	
15	(-σι)		여격 복수 -εσσι				(-σι)	
16	(είς)	ἐν c. Acc.			(είς)		ἐν c. Acc.	(ἐς)



///2-3-2-1-1)고대인들의 이론.

그리스 부족(stämme, 部族)들과 방언들을 그룹화하려는, 언급할 가치있는 시도는 Strabo vii 1, 2)[스트라보는 기원전 약 63년 경에서 기원후 약 21년 경에 살았던 지리학자이다]에서 발견된다: Attisch, Ionisch, Dorisch, Aeolisch 라는 네 가지 방언들이 있다는 지배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그는 두 가지 주요 그룹, Ionisch-Attisch와 Dorisch-Aeolisch을 형성해낸다. 그러나 그는 이오니아 방언과 앤티카 방언을 현실적으로 하나인 것으로 정립하는 반면 그 때문에만 단지 나란히 도리아 방언과 아이올리아 방언을 일치시킨다. 도리아인의 이동에 따라 그 양자가 섞여지는 구분된 정도를 통해서 서로 묶여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트라보는 그리스인의 부족들을, 문법가 Herakleides Pontikos(Athenaeus XIV 624 c)에 의해 역시 받아들여진 세 부분으로 확정한다. 스트라보는 Megara와 Attika와 그리고 Parnaß의 작은 Doris 땅을 제외한 Isthmus 바깥의 전체적인 부족을 *Aeoliern*(아이올리아 사람들)로 간주하는데, Peloponnes에서 거주하는 도리아적인 그리고 아이올리아적인 부족들 중에서 후자들은 Arkader와 Eleer를 통해서 들어선다: αὐτοὶ [sc. οἱ Ἀρκάδες καὶ Ἡλείοι] αἰολιστὶ διελέχθησαν, οἱ δ' ἄλλοι [즉 필레폰네소스의 도리아 부족화] μικτῆ τιμὴ ἐχρήσαντο ἐξ ἀμφοῖν [sc. Δωεῖδος καὶ Αἰολίδος], οἱ μὲν δ' ἦρτον αἰολίζοντες.

'*Dorisch*'(도리아인의, 도리아적인) 라는 개념은 문법가들에 의해서 스트라보 보다 더 확장된 어떤 것으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Aetolier와 Epiroten 역시 Dorein(도리아인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Stephanus von Byzanz s. v. Ἰωνία und den Grammaticus Meermannianus(ed. Schaefer) p. 642(역시 Ioannes Gramm., s. Ahrens II 4.와 비교하라.

기존의(erhaltenen) 방언문학에는 방언들의 다섯 가지 나뉘이 지배적이다(이것은 이미 게다가 Clemens Alexandrinus, Strom. I 21, 142에서 가리켜진다): 사람들은 Ἰαῶς, Ἀτθίς, Δωρίς, Αἰολίς 더우기 그 Κοινή를 덧붙인다. Gregor Corinth. p. 10 ff., 방언들에 관한(περὶ διαλέκτων) 나머지 논문들(Schaefer의 것), 및 Dionysios Thrax in den Gramm. graeci III 302f. 462f.에 대한 주석가들을 비교하라. 그 Κοινή가 방언들에 대해 맺는 관계는 이런 문법가들에게서는 선명치가 않다: 그 코이네를 방언들의 나머지 그룹화의 바깥에 내 놓으면서, 저것으로부터 그 방언을 파생시키거나(ἴδιον οὐκ ἔχουσα χαρακτῆρα Κοινή ὀνομάσθη διότι ἐκ ταύτης ἄρχονται πᾶσαι Gramm. Meermannianus bei Schaefer p. 642) 또는 그 거꾸로 그것이 네 방언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그러나 이미 위에서 언급한 주석가에 의해 이미 제기된 가정을 내 세운다(Gramm. Leidensis bei Schaefer p. 640). Herodian은 방언들과 코이네를 분명하게 맞

세우는 의식을 지녔다. s.H. Stephan DE Herodiani dialectologia 89 ff.

주된 방언들이 많은 다양한 방언들로 나뉜다는 것이 문법가들에 의해 자주 강조된다. 이미 Hrodot는 이오니아 방언들의 하위 종류들을 인지하며(§308), Tryphon은 그 다양함들을 Γλωτται라고 이른다. Dionysios Thrax에 대한 주석을 인용한 자리 § 23 Anm.과 비교하라; Korith의 Gregor는 ὑποδιαίρέσεις τοπικαί에 대해 말하며(ed. Schaefer p. 294 f.), Grammaticus Leidensis는 μεταπτώσεις에 대해 말한다(그래서 아이올리안 방언의 세 가지 μεταπτώσεις에 대해 말한다 p. 639).///

2-3-4)그리스어와 다른 인도유럽어들.

방언은 소리들과 어형변화(inflexion, 語形變化)와 구문론과 어휘의 측면에서 서로 두드러진 다름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방언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과거에 빛을 던져주면서 그리스어의 초기 조건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재구성에 있어 다른 인도유럽어들과의 비교가 동시에 사용된다. 잇따른 것에서 그리스어가 다른 언어와 자신의 다름을 그것에 빚지고 있는 보다 더 중요한 몇몇 소리 변화들을 간략하게 가리키려는 시도가 행해질 것이다.

부모 언어가 지녔던 자음들 중에서 그리스어는 **H**와 모음사이의 **y**와 **s**를 잃었다. **H**는 단지 선형문자 **B**에서만 살아 남으며, (예를들어 ζεναι “they are,” older *Hesenti, Hittite ašanzi) **ε**로 모음화(vocalized)한다. 산스끄리트어 trāyas “three”와 (Cretan) 그리스어 τρέες는 양자 모두 인도유럽어 trēyēs의 후손이다. 산스끄리트어 tras-ati “trembles”와 그리스어 τρέ-ω는 tres-로부터 왔다. 낱말의 시작에서 **y**와 **s** 양자는 **h**가 됐다. (관계대명사) ὅς는 산스끄리트어 yas(인도유럽어 yos)에 상응하며, 정관사 ὅς는 산스끄리트어 sa(인도유럽어 so)에 상응한다. 때로 **y**는 ζ로 됐다(산스끄리트어 yugám, 그리스어 ζυγόν); 그러나 이 ζ는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πλάθαιον 그러나 πλάτος에서처럼 대기음(aspirates, 帶氣音)들로 나타나는 그리고 본디 인도유럽어에서 긴모음이었던(축약에 의해서) 오랜 후음을 포함한다. 많은 방언들의 가장 초기의 기록들은 소리 **w**의 완전한 손실을 보여준다(예를들어 인도유럽어 owis로부터의 ὄϊς [oĩς], 라틴어 ouis를 참조하라). 그러나 다른 방언들은 (F(digamma)로 쓰여진) 이 소리 **w**를 유지한다. 예를들어 ὄφυς (4격복수)는 기원전 5세기 Argiv 비문에서 발견된다.

이런 네 가지 소리들의 손실은 자주 한 단어 안에서 서로에 연이어 서 있는 두 가지 모음들을 남겨놓는다. 이것은 처음에는 허용되지만 후에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된다. 이러한 축약들은 주로 호메로스 시들의 편찬 후에 발생한다. 그리고 축

약의 그 방법은 다른 방언들 마다 다르다. 따라서 호메로스에서의 *ναιετάει*와 같은 형식들은 그리고 앗티카어 *τιμῶ*와 도리아어 *τιμῶ, τιμῆ* 사이의 또는 앗티카어 *φιλω*와 이오니아어 *φιλέω*사이의 대조.

유음과 비음의 연결에 있어, *y, s*와 *w*는 사라지기 전에 자주 선행하는 모음을 길게 만든다. *ἔτεινα*(*ἔτεῖνα*로 발음)는 *ἔ-τεν-ς-α*로부터, *τείνω*(*τεῖνω*로 발음)는 *τεν-γω*로부터, 이오니아어 *ξείνος*(*ξῆνος*로 발음)은 *ξένφος*(*πρόξενφος*는 비문에서 발생한다)로부터 생겨났다. 여기에서도 방언들이 갈라진다. 세부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열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후음 또는 치음 또는 입술폐쇄음을 잇따르는 *y*는 그것을 단일한 소리로 묶는다: *φυλακ-γω*는 *φυλάσσω*가 됐으며, *μεθ-γος*(라틴어 *medius*, 산스크리트어 *madhyas*를 비교하라)는 *μέσσος* 또는 *μέσος*가 됐고, *μεγ-γων*은 *μέζων*(이오니아어), *χαλεπ-γω*는 *χαλέπτω*가 됐다.

(*μέσος*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치음+*y*로부터, 때로는 치음+*s*로부터 생겨난) *σ* 앞의 비음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사라지면서(예를들어 앗티카어 *πάνσα*로부터의 *πᾶσα*는, *τιθένσα*로부터의 *τιθείσα*), 그것의 뒤에 길어진 모음을 남긴다. 그러나 어떤 방언들은 *-νσ-* 연결을 유지한다(*Arc. πάνσα*). 유성음화(vocalization, 有聲音化) 또는 *H*의 손실은 주로 인도유럽어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

축약으로부터 그리고 보상적인 길어짐으로부터 생겨나는 수많은 긴 모음들이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때(are left out of account), 그리이스어 모음들의 나머지들은 주로 부모 말(speech)로부터 살아남는다: 예를들어, (도리아 어 등의) *μάτηρ*, 라틴어 *māter*; *δῶρον*, 라틴어 *dō-num*; (*F*)ίς, 라틴어 *ouis*; *φέρω*, 라틴어 *fero*; 때로 그 언어의 대부분이 *ä*로 일치할 때(*πατήρ*, *pater*, 등), 산스크리트어는 *i*를 지닌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형식은 *potato*에서의 *o*처럼 구분된 모음을 지녔다고 믿어진다.

인도유럽어 *t, p, d, b*는 그리이스어에서 변하지 않은 채 살아 남는다(때로 이미 인용된 낱말들 가운데서 그 본보기들이 발견될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dh, bh* 소리들을 지니는데, 이것들은 (영어의 *Irish* 발음에서의 *t, p*처럼 발음되는) 그리이스어 *θ, φ*를 생산했던 인도유럽어 *dH, bH*까지 거슬러올라간다; 예를들어 산스크리트어 *dhar-*, 라틴어 *fero*, 그리이스어 *φέρω*, 산스크리트어 *dadhāmi*, Lith. *dē-ti*(infin. “to lay”), 그리이스어 *τίθημι*.

경구개음(*palatal*, 硬口蓋音)과 순구개음(*labiovelars*, 脣口蓋音)이라고 기교적으로 불리우는 두 종류의 후음(*gutturals*, 喉音)들이 인도유럽어에는 있다.

경구개음은 그리이스어에서 *κ, γ, χ*로, 라틴어에서는 *c, g, h*로 그리고 Celtic과

Germanic에서는 후음들로서 나타난다: 예를들어 κύων, 라틴어 canis; ἄγω, 라틴어 ago; χιών, 라틴어 hiems. (인도이란어, 아르메니아어, 슬라브어와 발틱어 등의) 인도유럽어의 동부그룹에서는 그것들이 치찰음(sibilant, 齒擦音)으로서 나타난다. 예를들어 산스크리트어 śvā(어간 śum) “dog”, ajati “he drives”, himàs “frost, snow”, Lith. šun- “dog” žiemà와 Slav. zima “winter”.

입술구개음은 **qu** 또는 **kw** 류형의 소리들이다. 그것들은 라틴어 quis, ni-n-guit 에서 선명하게 더 또는 덜[다소 간에] 살아 남는다. 어떤 언어들에서 그것들은 u 또는 w 요소들을 빼트려서 k와 g와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처럼)gh로 된다. 때로 그것들은 p, b로 나타난다; 예를들어 라틴어 quis에 상응하는 Oscan pis, 영어 queen에 상응하는 Old Irish ben “woman”. 그리이스어 방언들에서 그것들은 a와 o모음 앞에서는 입술음(labial, 순음, 脣音)π, β, φ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모두 인도유럽어 kwoinā로부터) ποιμή, Avestan kaēna “punishment”, 라틴어 kaina “price”; -βόρος, 라틴어 -vorus, 산스크리트어 -garós “swallowing”; (인도유럽어 gwhonos로부터) φόνος, 산스크리트어 ghanás. 모음 e와 i 앞에서 그것들은 치음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ποιμή와 동일한 어근의 형식들, kwī-, kwei-로부터) τίνω, τείσαι, τις, 라틴어 quis, θείνώ 산스크리트어 hanti “he kills”, Hittite kuenzi “he kills”(φόνος, ἔπεφνε, πέφεται와 동일한 어근으로부터, 인도유럽어 g“hen-ti). 아이올리아(Aeolic)방언에서는 심지어 e- 모음 앞에서도 입술음들이 나타난다: 예를들어 πήλοι “far”, 앗티카어 τῆλε; 보에티아어 πέτταρες, 앗티카어 τέτταρες, 도리아어 τέτορες(라틴어 quatuor와 비교하라). 입술구개음은 종종 인근의 u 덕분에 자주 그리이스어 후음으로 발전하다: 예를들어 αι(γ)-πόλος와 동일한 어미를 지니는 βουκόλος, 라틴어 colo, in-quil-inus와 비교하라; κύκλος, Lith. kāklas “neck”, 영어 wheel; γυνή, 보에티아어 βανά, 영어 queen. 대명사 τις는 테살리아어에서는 키ς로 나타난다; πότερος, πῶς 대신에 헤로도투스는 κότερος, κῶς를 지닌다.

그리이스어 (πατήρ의 여격 복수인) πατράσι는 아주 밀접하게 (심지어 엑센트의 측면에 있어서조차) 산스크리트어 위치격인 pitṛsu에 상응한다. 이것에서는, 많은 산스크리트어 낱말들에서처럼, **r**가 모음으로서 기능한다. 소위 “명음”(sonant, 鳴音) r는 부모 말(speech)과 동일한 소리의 후손이다. 다른 언어(languages)들에서의 그 결과는 짧은 모음에 선행하는 또는 짧은 모음이 잇따라 오는 r이다: 그리이스어 ῥā 또는 ᾗρ, 라틴어 or, Lith. ir, 독일어 ur 등. 그 모음의 질에 있어서의 다양함은 그것이 각 언어들에서 분리되어 발전 돼 왔다는 신호이다. 동일한 현상들이 l과 m과 n의 경우에도 관찰된다. 예를들어 명음 m은 100에 해당되는 낱말들인 인

도유럽어 kmtom, 라틴어 centum, Lith. šimtas, 독일어 hund; 그리스어 ἑκατόν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śatám은 명음 m이 이런 언어들에서는 a로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소리들의 기교적인 쓰기법을 사용하자면) m 또는 n으로부터의 동일한 ã는 [-o-m로부터의] (라틴어로는 illu-m) ἔργο-ν 어간 -o와 동일한 어미를 지니는 ποδ-m으로부터의 πόδ-α에서 그리고 λέλυ-νται와 동일한 어미를 지니는 (γεγράφηται로부터의) γεγράφεται에서 발견된다.

아이올리아 방언은 그 명음의 자리에 ρα가 아니라 ρο를 지닌다; 예를들어 στρτος로부터의 στρατός가 아니라 στρότος이다(R. McK.; J. Wh.).

/그리스어는 그것의 모든 것이 공통의 시원적인 언어(원시-인도-유럽어)로부터 전개됐으며, 그것의 자연은 알려진 인도유럽어들의 비교에 의해 재구성됐을 인도유로피언(Indo-European)이라고 불리우는 언어들 한 가족을 구성한다. 인도유럽어군 내의 그리스어는 별도로 한, 그 주요언어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Hittite; Tocharian; Indic; Iranian; Armenian; Albanian; Slavic; Baltic; Germanic; Italic; Celtic. 다른 인도 유럽어들은 불완전하게 또는 단편적으로 알려진다 (예를들어 Venetic, Messapic, Illyrian). 어떤 하나가(특히 히타이트어)가 원시인도유럽어에 대해 맺는 관계는 학자적 논쟁거리이다. 어떤 인도 유럽어들이 어떤 흔적도 남김이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 시기에 발견되거나 해석된 Tocharian 또는 Hittite 이 양자의 경우에서 바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언어들 증거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똑같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그룹들 중 어떤 것은 공통의 언어학적인 특질의 현존을 통해 보여진 그대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를들어 인도어와 이란어는 특별히 밀접하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 언어들과의 연결이 자주 요청됐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밀접한 관계는 맺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도유럽어들의 그룹들 모두에 발생했던 언어학적인 변화들과 그리고 이런 그룹들로부터 파생된 개별적인 인도유럽어들에서 발생했던 여전히 더 나아가 특별한 변화들이 자연스레 크게 그것들을 차이나게 했다. 예를들어 심지어 가장 최근에 포착된 형식(고대 영어)에 있어서 조차, 영어는 우리가 원시인도유럽어를 위해 재구성한 것과 아주 다른 소리체계를 보여준다. 본디 폐쇄음이었던 것이 체계적으로 독일어들로 옮겨졌다. 그래서 예를들어 보통(plain) 무성 폐쇄음 p, t, k는 (어떤 잘 규정된 언어학적인 상황들 하에서) f, θ, χ로 도식화할 수 있을 독일

어 소리들로 규칙적으로 전개됐다(Grimm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형식들에 있어서의 낱말 첫 폐쇄음들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리라.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πούς	pēs	Fuss	foot
τρεις	trēs	drei	three
κολωνός 'hill'	collis	OEng. hyll, Eng. hill	

위의 예들에서 영어 단어들은 그리스어 단어들과 친족(cognate, 親族)적이다라고 말해진다. geography, theater와 같은 그런 파생 단어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스어 (γεωγραφία, θέατρον)로부터 차용되거나 또는 그리스어 요소들로 구성된다(streptococcus, psychoanalysis)./

3)코이네(Koine, 공통방언)와 비잔틴 그리스어.

Koine(κοινή διάλεκτος, “common dialect”, 공통방언)은 알렉산더 대왕시대 때부터 Justinian의 시대까지(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기원후 6세기 중반까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섬들과 식민지들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또는 희랍화된 지배자들의 지배(sway, 支配) 하에 처하게 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커다란 지역에서 말해진 공정하게 일정한 헬레니스틱(Hellenistic) 그리스어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빌고 그리스(Greece)는 자신의 정치적인 의의를 잃었지만, 그리스어(Greek)는 심지어 많은 외국인 또는 두 가지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사업과 정책과 문화의 국제적인 언어였다. *말해진(spoken) 방언으로서의 코이네*는 비문들과 파피루스들의 풍부함으로부터 재 구성될 수 있다. 고전적인 모델들의 꼼꼼한 모방들에 의해서 덧 씌워진 문어(literary, 文語) 적인 코이네는 Polybius 또는 Diodorus와 같은 그런 저자들의 세심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으며, 말해진 언어의 두드러지게 많은 영향은 70인 역 그리스어(기원전 약 3세기 ~ 기원전 2세기)과 신약성서(기원후 1세기)에서 분명해진다.

그 코이네의 토대는 무엇보다도 아테네의 과거 정치적이고 문학적인 탁월함에 의해서 도드라지는 *앗티카 방언*이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된다. 앗티카 이외의 다른 고대 그리스 방언들은 이미 어느 경우에서든 죽어가고 있었다. *이오니아 방언*은 γλώσσα “tongue”와 θάλασσα “sea”와 같은 그런 단어 안에서의 -tt- 대신에 -ss-에서처럼 몇 몇의 형식들에 있어 코이네에 기여를 했다. 나아가서 알렉산

더 제국과 그 계승자들의 3 가지 말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언어들의 말 관습에 따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그리스어를 정도껏 변경시켰다. 예를 들어 -nt- 연결은, 현대 그리스어에서처럼, -nd-로(예를 들어 πέντα “five”가 pende로 됐다)로 발음됐던 것은 소 아시아에서였다. 특별히 라틴어와 히브리어로부터 많은 외래어들이, 로마 문명과 기독교가 헬레니즘에 접촉하면서, 인정된다. 기원후 1 세기에 소위 Atticism(앗티카주의)와 같은 순수주의자의 운동의 흥기와 그 학교들의 격렬한 영향은 **문어적인** 쓰임새에서의 고전규범들에서의 일탈 기운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말해지는** 코이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원전 3 세기 초엽 변경된 발음을 가리키는, 철자법에서의 의의있는 잘못들이 교육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 쓰여진 텍스트들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ι 대신에 ει, ω 대신에 ο, αι 대신에 ε.

언어학자들에게 말해진(spoken, 구어적인) 코이네가 특별한 관심을 받은 것은, 음악적인 악센트의 손실과 예를 들어 여격 또는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 또는 기원법의 경우와 같은 점차적인 손실을 통한 범형들의 단순화와 같은 그러한 변화들이 비잔틴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를 지나면서 결국 점진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문법가 Phrynichus(기원후2세기)같은 그런 엄격한 앗티카주의자는 동시대의 일상적인 말로부터 모아진 부적절한(reprehensible) 낱말들과 형식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프뤼니쿠스에 의해 첨삭된(castigate)용어들이 비잔티움과 현대 그리스어로 전달됐을 때 그 목록은 코이네 용법의 특히 반대적인 논증이다.

/ Koinè 또는 Common dialect(ἡ κοινὴ διάλεκτος)은 알렉산드리아 시대에 흥기하여, 로마가 동방을 정복할 때 까지 학습의 중심지로서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발흥으로부터 그렇게 분리워져 기원후 6 세기 고대 세계의 끝까지 지속된다. 코이네는 Gaul에서부터 Syria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서 그리스어로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언어이며 그리고 수많은 다양함들의 표지들을 지닌다. 그것의 말해진 형식에서의 코이네는 두드러지게 많은 수의 이오니아 단어들과 다른 방언들로부터의 차용어들과 뒤 섞어진 앗티카어의 말해진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앗티카 정서법으로는 아니다. 앗티카의 문어적인 쓰임새와 말해진 언어의 타협인 문어적인 형식은 살아있는 말이 그것으로부터 점 점 더 떨어져 나가는 인위적이며 거의 정적인 용법(idiom, 用法)이었다.

(약 205년 ~ 기원전 120 경) 역사가 Polybius와 (Augustus 시대의) Diodorus와 (약 46년 ~ 기원후 120 경) Plutarch와 (약 150 ~ 기원후 235 년 경) Cassius Dio와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수사학자 *Dionysius of Halicarnassus*와 (약 120 ~ 기원후 180년 경)*Lucian*과 (기원전 약 64년 ~ 기원후 19년) 지리학자 *Strabo* 등의 저술들이 바로 이 코이네로 작성됐다.

앗티카주의자(Atticist) 라는 이름은 보다 이른 앗티카어의 순수함을 재생산하려고, 예를들어 *Lucian*과 같은 코이네 방언으로 저술활동을 하는 반동적인 저술가들에게 주어진다. 앗티카주의자들은 주로 기원후 2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다.

어떤 저술가들은 코이네의 한 형식으로서의 헬레니스틱(Hellenistic) 코이네를 구분한다. 이들에 따르면 헬레니스틱 코이네는 신약과 70인역 구약성서에 한정된다. 부분적으로는 문자적이며 부분적으로 참아낼수있을만큼 자유로운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Septuagint**)은 Ptolemy Philadelphus(기원전 285-247)에 의해 시작되어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화 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Hellenistic(헬레니스틱) 이라는 낱말은 (ἐλληνίζω, speak Greek로부터 온), 그리스어를 학습했지만 그리스 태생이 아닌 (특히 유대인) 자들에게 적용되는 용어인 Ἑλλητιστής로부터 파생됐다. 신약은 그 작업시에 다소 고전적인 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그 시대의 대중 언어로 작성됐다. [그러나] 코이네와 헬레니스틱 그리스어 사이에는 어떤 정확한 구분(distinction, 區分)도 주어질 수 없다./

3-2)비잔틴 그리스어.

Byzantine(비잔틴어)는 1453년 Turks에게 함락된 동로마제국 또는 비잔틴제국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비잔티움과 그리고 비잔티움이 지배했던 광대한 지역의 공식언어는 가능한 한 고전 앗티카어 모델의 모방이었다. 이러한 고전 앗티카어에서 많이 일탈된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 쪽으로 기울어 **말해진** 언어는 헬레니즘화한 시리아 연대기작가 John Malalas(기원전 6세기)와 Neapolis 출신의 성인전(hagiographer, 聖人傳)작가 Leontius와 황제 Constantine VII Porphyrogenitus(10세기)와 같은 저자들로부터 재구성될 수 있다.

4)현대 그리스어.

현대 그리스어 또는 Romaic의 시작은 1453년 투르크인들에 의한 Constantinople(Istanbul)의 함락 때부터 습관적으로(conveniently) 날짜가 매겨진다. 그리스와 그리스 섬들에서 그리스어로 말하는자들 이외에도, 터키 내에

도 여전히 그리스 공동체들이 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남부 Albania와 소련과 이집트와 루마니아와 그리고 북과남 아메리카 내의 여러 곳들과 마찬가지로 남부 이태리로 모여들었다. 현대 그리스어는 코이네로부터 출발하여 중세 그리스어를 거쳐 전개됐으므로, *현대 그리스 방언들은*, 고대 Laconian의 특색들을 보유하는 Tsakonian을 가능한 예외로 하더라도 고대의 방언들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다. 방언들은 아주 다르다. 그것들은 끝 ν의 탈락 또는 유지에 따라 서부 또는 동부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만족스럽다.

중세 이후의 그리스어의 놀라운 특색은 말함과 글쓰기의 날카로운 두 가지 차이 나는 어법(idioms, 語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διγλωσσία*).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두 가지 주장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대중적”(δημοτική, demotic)이라고 불리우는 **말해진** 언어는 일상회화체이며 그리고 최근들어 일반적으로 **문어적인** 쓰임새로 애호되고 있다. 훨씬 고대 그리스어에 가까운 **쓰여진(Written)** 또는 “순수한”(καθαρεύουσα)언어는 그리스 국가의 공식 언어(tongue, 言語)이다.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경우에만(예를들어 그리스 정교회 예배집전예식 또는 그리스 의회 또는 학교 강의에서처럼) 말해지지만, 그러나 모든 공식적인 그리고 대부분 과학적인 저술과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스어의 이 두 가지 다양함은 동일함 음성학적 체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그 동사변화와 구문론과 어휘에 있어 다르다.*

1 중세 그리스어(*Medieval Greek*) 라는 용어는 때로 기원전 6 세기 중반부터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사이에 유포된(current) 그리스어 형식에 적용된다. 현대 그리스어(*Modern Greek*)은 여전히 학자들과 성직자들에 의해 사용되던 문어가 더이상 보통 사람들에 의해 일상어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인 11 세기에 일찌기 사용되던 언어의 형식에 느슨하게 적용되는 언어이다. 학식언어와 일상언어 사이의 대조는 일찌기 발전됐다. 한편으로 11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고전 형식들의 엄밀한 재흥을 목격하는 반면 다른한편으로 말해지는 어법은 점점 더 떨어져나가는 경향을 지닌다. 중세 동안에 그리고 그리스 혁명 시대(1821~1831)까지의 그 언어가 자주 *Romaic* (Ρωμαϊκή)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으므로, 스스로들 Ρωμαίοι, 즉 Romans 라고 부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고대 모델들에 토대를 둔 어법과 보다 더 대중적인 말에 일치하는 어법 사이의 대조는 현대까지 지속되는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다.* 오늘날 그리스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

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세트의 언어적 패턴들을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카타루사(καθαρεύουσα, 순수한 언어) 라고 불리우는 공식언어는 사실상 **쓰여진** 모든 의사전달을 위한 표준이지만 그것이 **말해질** 때는 단지 그리스 정교회와 그리스 의회 등 등에서 공식적인 의도에서만 말해진다. 데모티케(δημοτική, demotic)라고 불리우는 **말해지는** 언어는 말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정상적인(nomal)언어이지만 **쓰여질** 때는 그것이 단지 덜 공식적인 문어적 컨텍스트(contexts, 맥락)에서만 쓰여진다. 현대 그리스어의 발음은(이것이 현대 그리스어 방언들의 돌출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그 양자의 다양함들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고전 시기의 그것으로부터 변경됐다. /

//4-1) Dialossia.

그리스어를 위한 사회적 자리매김의 한 양상은 특별한 언급을 받을 만하다. 그러한 양상이 수 세기를 걸쳐 그리스어가 사용되는 동안 아주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급적인’(high) 또는 ‘저급한’(low) 다양함들 사이의 구분이 제도화되는 정도이다. 확실히 비슷한 구분들이 말의 모든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리스어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그것의 범위(extent, 範圍)이며 그리고 이중적인 언어 공동체(diglossic community)의 고전적인 예로서 기술되어왔다는 점에서 그것의 정점이다.

고대에서는, 문어적인 것과 일상어적인(colloquial) 것 사이의 구분이 위대한 고전적 작품들의 그리스어와 그리고 예를들어 아테네 아고라(agorá, 시장통)에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에서처럼 비공식적인 비문들의 그리스어 사이의 다름에서 관찰 가능하다. 고전 이후 시대에서는 비슷한 어떤 구분이 고전 앗티카 스타일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에 있어서의 수많은 의식과잉어법(hypercorrections)와 솔직한 잘못들을 보여주는 헬레니стик 이집트의 문어적이지 않는 파피루스들을 문어적인 작품들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돌출한다.

보다 후에 많은 비잔틴 그리고 중세 저술가들은(특히 보다 더 학식있는 작업(pursuits)에 종사하는 자들은) 고전 앗티 용법을 모방했던 의식적으로 시원화하는 다양함 속에서 글을 썼다—심지어 일상어가, 그것의 코이네 기저로부터 언어적인 전개와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전적으로 다른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잘-발전된 문체론적인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장르와 관련하여서(예를 들어 일상어적인 사랑의 시 대(vs. 對) 학식있는 종교적 문서들에서처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상황과 관련하여(예를 들어 공식적인 배경에서의 학식있는 용법에서

럼) 유지됐다.

1820년 대에 그리이스 연방-국가(nation-state)가 오토만(Ottoman)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전쟁 후에 설립됐을 때, 그리이스 지도자들은 국가언어를 통합의 상징으로 삼기를 원했다. 그들은 다양한 언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했다: 고대 그리이스의 영광과 연결하여 전개됐던 시원적인 순수한 그리이스어(마찬가지로 katharévoussa ‘purified’ 라고 불리운다) 아니면 자연스레 보다 더 이른 말해진 형식들로부터 솟아 오른 일상어적인 다양성(마찬가지로 ‘Demotic’, 그리이스어 dēmotikós ‘popular, of the people’로부터)인가? 이런 상황은 고급 대 저급 구분의 정치화로 나아갔으며, 두 개의 주요 언어 ‘진영’이 다른 정치적인 입장과 연합됐다(카타르부사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을 옹호한 반면 데모틱은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을 지지했다). 고급적인 다양함은 보다 더 세속적인 기능은 저급한 다양함에 남겨둔 채, 19세기와 20세기 대부분 동안 아주 공식적이고 형식화된 기능들을 더 맡았다.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많은 언어학적인 그리고 학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담론과 에너지가 이런 ‘언어적인 문제’에 맞추어졌다: 다른 다양함들의 장점들과 쓰임새들에 대한 토론. 1980 년 대에 이르러 공식적인 입장은 데모틱(대중적인) 그리이스어를 선호했기에, 솟아오르는 표준 언어는 근본적으로 카타르부사와 어느 정도 섞인 데모틱어였다. //

5)쓰기 체계.

글쓰기 발전 단계: 쓰기법없음(그림들) → 글쓰기의 선구 Semasiography: a)표상기술장치 b)기억확인장치					
온전한글쓰기					
ㄱ)날말-음절적	Sumerian (Akkadian)	Egyptian	Cretan	Hittite	Chinese
ㄴ)음절적	Elamite Hurrian	West Semitic (Phoenician)(Hebrew) (Aramaic)	Linear A Linear B Cypro- Minoan Cypriote Phaistos? Byblos?		[Korean] Japanese
ㄷ)알파벳적		Greek Aramaic(vocalized) Hebrew(vocalized) Latin Indic			

여러 다른 쓰기 체계들이 수 세기 동안 그리스에서 사용돼왔다: 미케네 그리스 선형문자 B 음절적인 스크립트; 고대 사이프러스 비문들의 다소 음절문자와 비슷한 스크립트; 그리고 중세에 (예를들어 소 아시아에서) 그리스인들에 의해 종종 사용됐던 히브리 알파벳과 심지어 아랍 알파벳. 그러나 (전통적으로 Phoenician 이라고 말해지는) 북 셈어 재원으로부터 그리스인들에 의해 채용된 알파벳 체계가 그리스어를 글로 쓰기 위한 가장 공통인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체계이다. 이러한 알파벳이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형태소(graphemes, 形態素)들과 음소(phonemes, 音素)들 사이의 밀접한, 일-대-일 대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어떤 긴 모음소들은 여러 가지로(not uniquely) 나타내졌으며 어떤 자음 덩어리(clusters)들은 구분된 형태소들을 지녔다. 새롭게 대립된 어떤 것들이 이차적으로 한소리를 나타내는 두글자(digraphs)에 의해서 제시되는 중세와 현대 그리스에게는 그러한 적용(fit, 適用)이 덜 적절했다. 고대 세 가지 높낮이 엑센트들 위한 구별부호들은 단지 알렉산드리아 문법가들에 의해서 헬레니스틱 시대에 도입됐을 뿐이다. 그리고 중세 그리스어에서의 단일한 강세 엑센트로의 이동은 필요 이상의 부유한 정서법을 남겨놓았다. 최근의 공식적인 개혁은 세 겹의 그래픽적 엑센트 체계를 단일한 부호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의 고대와 현행의 음성학을 고려한, 그리스 알파벳은 아래 도표 1에 주어지며, 그리고 이중모음과 한 소리를 나타내는 두 자음글자들과 구별부호들은 아래 도표 2에서 주어진다.

TABLE 1. *The Greek Alphabet*

Capital/Small letter	Ancient Pronunciation/ Transliteration	Modern Pronunciation/ Transliteration
A/α	[a]/a	[a]/a
B/β	[b]/b	[v]/v
Γ/γ	[g]/g	[j] (—i,e)/y, j [ɣ] (elsewhere)/g(h), γ
Δ/δ	[d]/d	[ð]/d(h), δ
E/ε	[e]/e	[e]/e
Z/ζ	[zd]/z	[z]/z
H/η	[e:]/e:, ē	[i]/i
Θ/θ	[tʰ]/th	[θ]/th, θ
I/ι	[i]/i	[i]/i
K/κ	[k]/k, c	[k]/k
Λ/λ	[l]/l	[l]/l
M/μ	[m]/m	[m]/m
N/ν	[n]/n	[n]/n
Ξ/ξ	[ks]/x	[ks]/ ks, x (as in fox)
O/ο	[o]/o	[o]/o
Π/π	[p]/p	[p]/p
P/ρ	[r]/r	[r]/r
Σ/σ (ς—#)	[s]/s	[s]/s
T/τ	[t]/t	[t]/t
Υ/υ	[y]/y, u	[i]/i
Φ/φ	[pʰ]/ph	[f]/f
X/χ	[kʰ]/ch, kh	[x]/h, x
Ψ/ψ	[ps]/ps	[ps]/ps
Ω/ω	[ɔ:]/o:, ō	[o]/o

TABLE 2. *Greek Diphthongs, Consonantal Digraphs, and Diacritics*
(— means symbol not used in the period.)

Symbol	Ancient Pronunciation/ Transliteration	Modern Pronunciation/ Transliteration
αι	[aj]/ai	[ε]/e
αυ	[aw]/au	[av](— + voice)/av [af](— - voice)/af
ει	[e:]/ei	[i]/i
ευ	[ew]/eu	[ev](— + voice)/ev [ef](— - voice)/ef
οι	[oj]/oi	[i]/i
ου	[o:]/ou	[u]/u
υι	[yj]/yi, ui	[i]/i
γ—γ, χ, ξ	[ŋ]/n(—g, kh, ks)	[ŋ]/n(—g, h, ks)
γκ	[ŋk]/nk	[(ŋ)g] medially/(n)g [g] initially/g
μβ, μπ	[mb, mp]/mb, mp	[(m)b] medially/(m)b [b] initially/b
νδ, ντ	[nd, nt]/nd, nt	[(n)d] medially/(n)d [d] initially/d
τζ	—	[dʰ]/dz [tʰ]/ts
τσ	—	—
·	[h]/h	—
ˊ	θ (= absence of h)	—
˘	high pitch/˘	primary stress/˘
˙	low pitch/˙	—
˘˙	contour pitch/˘˙	—

5-1)코이네 공동방언 알파벳

§ 20. The Greek Alphabet in the Hellenistic period had twenty-four letters :—

Form.			Transliteration.	Name.	
1	2	3		In Greek.	In English.
A	Α	α	a	ἄλφα	Alpha
B	Β	β	b	βῆτα	Bēta
Γ	Γ	γ	g	γάμμα	Gamma
Δ	Δ	δ	d	δέλτα	Delta
E	Ε	ε, ε	ě	εἶ, later ě	Epsilon
Z	Ζ	ζ	z	ζῆτα	Zēta
H	Η	η	ē	ἥτα	Ēta
Θ	Θ	θ, θ	th	θῆτα	Thēta
I	Ι	ι	i	ιώτα	Iōta
K	Κ	κ	k (c)	κάππα	Kappa
Λ	Λ	λ	l	λά(μ)βδα	Lambda
M	Μ	μ	m	μῦ	Mu
N	Ν	ν	n	νῦ	Nu
Ξ	Ξ	ξ	x	ξεῖ	Xi
O	Ο	ο	ō	οῦ, later ō	Omicron
Π	Π	π	p	πεῖ	Pi
P	Ρ	ρ	r	ῥῶ	Rho
Σ	Σ	σ, σ	s	σίγμα	Sigma
T	Τ	τ	t	ταῦ	Tau
Υ	Υ	υ	u (y)	ῦ	Upsilon
Φ	Φ	φ	ph	φεῖ	Phi
X	Χ	χ	kh (ch)	χεῖ	Chi
Ψ	Ψ	ψ	ps	ψεῖ	Psi
Ω	Ω	ω	ō	ῶ	Omega

/5-2) 앓티카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은 스물-네 개 글자들이다. 적절한 음가는 마지막 열에 주어진다. 이것은 약간 수정된 고전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발음이다. 대문자가 아닌 *Sigma*(시그마)는 낱말 끝에서는 ς 로, 그러나 그 이외의 곳에서는 σ 로 쓰여진다. 그리고 현행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로부터 파생된 **괄호 안의 이름**들은 중세 후기의 늦은 어느 시기에 주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epsilon*은 ‘단순한 e’를, *upsilon*은 ‘단순한 u’를 의미한다. 이런 문자들을 ϵ 와 υ 처럼 소리나는 α , ω 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아가서 *Labda*는 *lambad*보다 고대어 더 많이 포착된 이름이다.

아래 주어진 그리스 알파벳은 **Ionia**에서 발원된 것들이며, **기원후 403년** 경에 **아테네**에서 채용됐다. A로부터 T까지의 문자들은 페니키아어로부터 파생됐으며 그리고 썸어 이름들을 지녔다. Y부터 Ω 까지는 그리스인들에 의해 발명됐다. 그리스 알파벳들로부터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의 알파벳들이 파생된다. 고대에서는 (E와 같은 대문자들)majuscules라고 불리우는 대문자들만 단지 사용됐다. 문어적인 투로 기원후 9세기에 사용된 소문자들(minuscles)은 둥근 수사체의 흘림체 형식들이다. 기원전 403년에 앓티카 공식 알파벳에서 E는 ϵ , η , 가짜의(spurious) ϵ 를, O는 \omicron , ω , 가짜의 \omicron 를, H는 강기식을, X Σ 는 Ξ 를, Φ Σ 는 Ψ 를 나타냈다. Λ 는 γ 대신 쓰였다.

고대에는 두 가지 다른 문자들이 있었다: Υ Υ : $\Upsilon\alpha\upsilon$, *vau*는 그 모양으로부터 digamma 곧 겹쳐진(double)-감마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ϵ 뒤에 오며 그리고 w처럼 발음된다. Υ 는 기원전 200년 늦게까지 boeotian에서 쓰였다. Υ ρ : $\kappa\omicron\pi\pi\alpha$, *koppa*는 π 뒤에 온다. *san* 이라고 불리우는 s는 부호 \wp 은 *sampi* 즉 *san + pi* 라고 불리운다. Υ 는 숫자 6을, ρ 는 숫자 90을, \wp 는 숫자 900을 나타냈다.

그리스 알파벳은 후에 주목할만한 다른 알파벳들의, 즉 Coptic, Gothic, Armenian, 그리고 Cyrillic 등의 토대로 봉사한다.

Form	Name	Transliteration	Sound as in
A α	ἄλφα	<i>alpha</i>	<i>a</i> <i>ā</i> : aha; <i>ā</i> : father
B β	βῆτα	<i>bēta</i>	<i>b</i> beg
Γ γ	γάμμα	<i>gamma</i>	<i>g</i> go; also nasal (19 a)
Δ δ	δέλτα	<i>delta</i>	<i>d</i> dig
E ε	εἶ, εῖ (εἶ ψιλόν)	<i>ēpsilon</i>	<i>ē</i> met
Z ζ	ζῆτα	<i>zēta</i>	<i>z</i> daze
H η	ἦτα	<i>ēta</i>	<i>ē</i> Fr. fête
Θ θ, θ̄	θῆτα	<i>thēta</i>	<i>th</i> thin
I ι	ιώτα	<i>iōta</i>	<i>i</i> <i>ē</i> : meteor; <i>ī</i> : police
K κ	κάππα	<i>kappa</i>	<i>c, k</i> kin
Λ λ	λάμβδα	<i>lambda</i>	<i>l</i> let
M μ	μῦ	<i>mu</i>	<i>m</i> met
N ν	νῦ	<i>nu</i>	<i>n</i> net
Ξ ξ	ξεῖ (ξῖ)	<i>xi</i>	<i>x</i> lax
O ο	οὐ̄, ὄ̄ (ὄ̄ μῖκρόν)	<i>ōmicron</i>	<i>ō</i> obey
Π π	πεῖ (πῖ)	<i>pi</i>	<i>p</i> pet
P ρ	ῥῶ	<i>rho</i>	<i>r</i> run
Σ σ, σ̄	σίγμα	<i>sigma</i>	<i>s</i> such
T τ	ταῦ	<i>tau</i>	<i>t</i> tar
Υ υ	ϋ̄ (ϋ̄ ψιλόν)	<i>upsilon</i>	(<i>u</i>) <i>y</i> <i>û</i> : Fr. tu; <i>û</i> : Fr. sûr
Φ φ	φεῖ (φῖ)	<i>phi</i>	<i>ph</i> graphic
X χ	χεῖ (χῖ)	<i>chi</i>	<i>ch</i> Germ. machen, ich
Ψ ψ	ψεῖ (ψῖ)	<i>psi</i>	<i>ps</i> gypsum
Ω ω	ὦ̄ (ὦ̄ μέγα)	<i>ōmega</i>	<i>ō</i> note

5-3)서부와 동부 알파벳.

일반적으로 서부와 동부로 알려진 Chalcidic과 Ionic 등 두 가지 형식들의 그리스 알파벳들은 두 가지 다른 차용(borrowings, 借用)들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페니키안 재원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차용론은 아마 제외될 것처럼 보인다. 직접적인 차용이었다는 전통은 단지 Boeotia 만을 지시하는 Herodotus로부터 왔다. 그리고 Phoenices 라는 이름은 동부 외국인들에게는 애매모호 했을 것이다. Achaeans은 기원전 15 세기에 동부 에게해를 아우리는 해군력을 지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것보다 더 두드러지게 더 이른 시기에 서쪽과 남쪽 소아시아에서의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로부터 알파벳을 차용했다거나 또는 독립적인 그리스 도시(states)들에게 분리된 차용들과 분리된 응용(adaptations, 應用)들이 있었다고 결론내리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세기의 세번째 십년에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비문들은 비록 완전한 일치가 여전히 있지 않기는 해도 그 문제를 두드러지게 단순화시켰다. 초기 가나안 스크립트로 관습적으로 기술된 이런 텍스트들은 Sinaitic과 그리고 초기 “페니키안” 형식들을 포함하는 북 셈어 형식들 사이의 전이(tansition, 轉移)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바로 이러한 “페니키안” 알파벳에 가장 오래된 그리스 알파벳이 밀접하게 닮아있어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은 페니키아 알파벳이라고 흔히 주장하도록 만들었다. 모든 권위들은 그러한 관계를 의심을 넘어서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페니키안은 단지 북 셈어(즉 궁극적으로 Canaanitish) 글쓰기의 단지 하나의 다양함일 뿐이다. 따라서 그리스 알파벳은 반드시 북 셈어에 그 기원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알파벳을 그들을 통해 획득한 중간 매개자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된 글쓰기의 북 셈어 다양함들은 다음 쪽의 표에서 보여질 것이다.

NORTH SEMITIC											EARLY GREEK	
AHĪRĀM	RUFĪSEH	AZARĪBĀ'ĀL	IFĪMĪELK	ABĪBĀ'ĀL	ELĪBĀ'ĀL	ŠAPATĪBĀ'ĀL	MESĀ'	ZINCIRLI	CYPRUS	SARDINIA		
𐤀	𐤁	𐤂	𐤃.𐤄	𐤅	𐤆	𐤇	𐤈	𐤉	𐤊	𐤋	𐤌	𐤍. Α
𐤎	𐤏	𐤐	𐤑.𐤒	𐤓	𐤔	𐤕	𐤖	𐤗	𐤘	𐤙	𐤚	𐤛. Β
𐤜			𐤝	𐤞	𐤟	𐤠	𐤡	𐤢	𐤣	𐤤	𐤥	𐤦. Γ
𐤧	𐤨		𐤩		𐤫	𐤬	𐤭	𐤮	𐤯	𐤰	𐤱	𐤲. Δ
𐤳			𐤴				𐤶	𐤷	𐤸	𐤹	𐤺	𐤻. Ε
𐤼		𐤽	𐤾		𐤿	𐥀	𐥁	𐥂	𐥃	𐥄	𐥅	𐥆. Υ. V
𐥇		𐥈	𐥉		𐥋	𐥌	𐥍	𐥎	𐥏			𐥐. I
𐥑	𐥒	𐥓	𐥔. 𐥕		𐥗	𐥘	𐥙	𐥚		𐥜		𐥝. Θ
𐥞						𐥟	𐥠	𐥡		𐥣		𐥤. ⊕
𐥦	𐥧	𐥨	𐥩		𐥫	𐥬	𐥭	𐥮	𐥯	𐥰	𐥱	𐥲. ζ
𐥳	𐥴	𐥵	𐥶	𐥷	𐥸	𐥹	𐥺	𐥻	𐥼	𐥽	𐥾	𐥿. χ
𐦀		𐦁	𐦂	𐦃	𐦄	𐦅	𐦆	𐦇	𐦈	𐦉	𐦊	𐦋. λ
𐦌		𐦍	𐦎	𐦏	𐦐	𐦑	𐦒	𐦓	𐦔	𐦕	𐦖	𐦗. μ
𐦘	𐦙	𐦚	𐦛		𐦝	𐦞	𐦟	𐦠	𐦡	𐦢	𐦣	𐦤. ν
𐦥		𐦦					𐦨	𐦩				𐦪. ξ
𐦬	𐦭	𐦮	𐦯	𐦰	𐦱	𐦲	𐦳	𐦴	𐦵	𐦶	𐦷	𐦸. ο
𐦹		𐦺	𐦻		𐦽	𐦾	𐦿	𐧀	𐧁	𐧂	𐧃	𐧄. ρ
𐧅	𐧆		𐧇	𐧈			𐧊	𐧋	𐧌	𐧍	𐧎	𐧏. σ. ς
𐧐		𐧑	𐧒		𐧔	𐧕	𐧖	𐧗	𐧘	𐧙	𐧚	𐧛. τ

ADAPTED FROM J. GELB, "A STUDY IN WRITING"

FIG. 3.—NORTH SEMITIC AND EARLY GREEK SCRIPTS

그리스인들에 의해 행해진 주요 응용(adaptations, 應用)들은 스물두개의 썸어 문자들 중 어떤 것을 모음 소리들에 배당한 것과 그리고 어떤 문자들의 추가(addition, 追加)이다. 그리스 알파벳으로 쓰여진 가장 오래 현존하는 비문들은 8세기까지 가능하게 9세기까지 날짜가 거슬러 올라가는 Thera 섬에서 1896년에 발견된 것들이다. 그리고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상부의 Abu Simbel로부터의 발굴, 6세기의 고린도와 아테네 비문, 그리고 여전히 더 오래된 몇몇 항아리 비문들. 테라에서의 가장 오래된 비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며, 다른 것들은 좌우교대서식(boustrophedon)이고, 다른 것들은 여전히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20세기 초에 Sardis에서 발견된 비문들로부터 알려진 Lydian 알파벳에서의 이런 기호들은 마찬가지로 모음들을 표시한다. 대부분의 그리스 국가들은 어떤 문자들의 형식들에 있어서든 또는 받아들인 22개 문자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든 표시되지 않는 소리들의 표시에 있어서든 지방적인 다양함(variations)들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동부와 서부 라는 두 가지 주요 나뉠들은 주로 (동부) 알파벳의 일정성이 그리스를 두루 통해 획득했을 때인 기원전 4세기까지 유지됐다. 테라로부터의 초기 비문들은 Moabite 돌에 또는 사이프러스로부터의 Baal-Lebanon에 표시된 것으로서의 썸어 알파벳의 형식들과 두드러지게 밀접한 닮음을 보여준다. Abu Simbel의 알파벳은 이오니아 유형의 것이다. (예를 들어 Carian과 Iberian과 Etruscan과 같은) 그리스어로부터 파생된 또는 그리스어에 관계된 알파벳들은 순수한 알파벳 글쓰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음절적인 글쓰기의 선명한 흔적을 때로 보여준다.

동부와 서부 라는 두 주요 나뉠들은 [각기] 다시 하위 두 가지로 나뉜다. Cyclade와 Attica에서 사용 중인 것들과 어떤 경우들에 다소 다름들을 보여주는 형식들을 자신들의 식민지들과 더불어 사용하고 있는 소아시아 도시들과 인근 섬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지나는 Megara와 Corinth와 Sicyon과 Phlius와 서부 Argolis의 알파벳은 Euboea와 Boeotia와 Phocis와 Locris와 Thessaly와 나머지 Peloponnesus를 포함하는 나머지 것들과 다르다. 기식(breathings, 氣息)들을 나타내는 썸어 문자들 Aleph와 he와 'ayin은 모음들을 나타내는 데에 모든 그리스 알파벳을 두루 통해 응용된다. Alpha(aleph)는 내 내 일관성을 유지한다. 썸어 he(후에 epsilon)에 상응하는 문자는 (로부터의 H, η와 'eta가 강기식을 나타냈던 그러한 경우들에서 짧고 긴 모음 양자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eta는 동부 알파벳에서는 모음소리를, 서부 알파벳에서는 기식을 나타냈다. 그래서 서부에서의 기호 또는 E는 Attic에서 ε와 η에 의해 나타내지는 두 가지 소리들 대신으로

사용됐으며, 동부에서의 그것은 훨씬 더 자주 단지 짧은 모음 만을 나타냈다. 이것에 덧붙여 그러나 그것은 종종, 앳티카에서는 ϵ 로 쓰여진 긴 단힌 $\bar{\epsilon}$ (eta에 의해 나타내진 긴 $\bar{\epsilon}$ 는 열린 것이었다)를 나타내기 위해 두루 종종 사용됐다. 이 이중모음 ϵ 는 $\bar{\epsilon}$ 로 됐기 때문이다. 고린도 알파벳은 긴 단힌 모음을 B 으로 쓰면서, e 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 또는 B를 (6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후에는 외곽지역에서) 사용함에 있어 독특했다. Sicyon은 형식 을 지니는 어떤 기호를 사용했다. 썸어 **Cheth(Greek eta)**는 보여졌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해 동부에서 모음으로 사용됐으며, 서부에서는 강기식으로 사용됐다. Theran 스크립트에서 그것은 양자 모두 대문자로 발생한다. (영어 낱말 처음에 오는 y의 소리를 닮은) **반 모음 \bar{i}** 는 강기식으로 퇴보하면서, 역사 이전의 시대에 그리스 언어로부터 사라졌다. 그래서 썸어 *yod*는 모음 **ι (iota)**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어에서 응용(adapted, 應用)된다. **Koppa(Ϟ)**는 기원전 5 세기에 이르러 동부 알파벳들에서 사라졌다. 자신의 자리에 **kappa(K)**가 강제로 들어서면서 말이다. 그러나 서부에서의 Ϟ는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다가, 보여질 것처럼, 이탈리아어 알파벳으로 도입됐다.

(w 소리를 나타내는 **φ** digamma는 썸어에 기원을 둔 것이었다. 썸어 알파벳의 여섯 번째 소리 **vau**는 그리스인들이 정확히 *yod*를 취했을 때처럼,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모음으로 사용되기 위해 받아들여져서, **tau**를 잇따르면서 알파벳의 끝에 놓였다. 그러나 자음적인 **i**는 그리스에서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w와 비슷한) 자음적인 소리 **u**는 어떤 방언들에서 고전 시대까지 생존했으며 그리그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기호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디감마는 알파벳의 순서에 있어서는 **vau**의 자리와 자음적인 **u**의 값 이 양자와 그리고 그것의 고대 숫자 값 (“여섯”)을 유지했다.

썸어 알파벳 중 치찰음을 다루는 그리스인들의 방식은 복잡했다. Zain은 **zeta**로 취해졌다. 비록 초기에 그것의 발음이 확실하지 않고 **dž, dz, ž**와 **z** 사이에서 방언들 만 다양했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이것들의 발음과 **s** 또는 **sh** 소리들은 문자적으로 **Shibboleth**(‘sh’를 발음할 수 없었던 에브라임사람Ephraimites들을 길르앗사람들Gileadites과 구분하기위해 사용됐던 말)였다. 썸어 알파벳의 열 다섯 번째 문자는 그것의 이름이 그것의 아람어 형식 **simacha**를 통한 음위전환(metathesis音位轉換)에 의해 그리스어 **sigma**로 된 **samech**이었다. 그러나 썸어에서는 **san**이었던 21번째 문자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 문자 자체는 동부 또는 이오니아 알파벳에서 **ks(ξ)** 값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초기 Thera에서의 그것은 **ss** 값을 지닌 반면 **x** 또는 **ks**는 **KM**에 의해서 표현됐다. 예게 해 섬들에서의 이런 연결을 표현하

는 보통 방식은 X 이었다. 서부에서 자주 +로 나타나는 문자 X는 (samech)의 직접적인 후손이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의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이스 알파벳의 26 번째 문자인 + 또는 X에 아주 독립적이었다. 처음 s는 두 개의 분리된 기호들 M과 그리고 하나는 썸어 sade의, 다른 하나는 썸어 san의 후손인 또는 ʒ에 의해서 표현됐다. 이 양자는 동일한 알파벳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M은 크레테와 테라와 멜로스에서, 6세기에는 Phocis에서 그리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단지 펠로폰네소스와 그것의 식민지들에서만 나타났다. Teos와 Halicarnassus로부터의 두 가지 5 세기 비문들에서의 형식 T는 음값 σσ를 지니고 나타났다. 무성 연구개 기식음은 서부 그룹을 제외한 모든 알파벳에서 실천적으로 그 알파벳의 26 번째 문자였던 형식 와 에 의해서 표현됐다. 그와 동일한 형식이 소리x를 표현하기 위해 서부에서 사용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은 아마 썸어 사멕 의 후손일 것이다. X가 무성 연구개 기식음(kh, X)가 아니라 x를 위해 사용됐던 서부에서는 그 문자가 기호 에 의해서 표현됐다. 보에티아에서의 은 현실적으로 소리 x를 나타내기 위해 과 연결되어 사용 발견된다. 이것은 서부에서의 그것이 동부의 X를 대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제안한다. 은 텔라와 멜로스에서는 소리 x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랑 혼자 사용됐다. X가 소리 kh를 표현했던 동부에서의 은 후에 이오니아 알파벳의 확산에 의해 표준화된 쓰임새인, ps 연결을 표현하기 위해 (때로 형식 을 지닌채) 사용됐다.

썸어로부터 파생되지 않았던 다른 기호들이 있다: ɸ(Phi)는 유성 순음 기식음(ph)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다; ʒ(Chi)는 그리이스어 마지막 문자 Ω는 아마 O로부터 차별지워졌을 것이다. 서부에서의 이런 기호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동부에서의 그것은 긴 열린 음 o를 나타냈다. 음성학적인 변화에 의해 Cyclades에서의 그것은 자주 길었던 짧았던(o 또는 ou) 닫힌 모음을 자주 표현했던 반면 O는 열린 소리를 나타냈다.

기호 ϕ와 의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X 또는 의 경우에는 아마 X는 으로부터 파생됐을 것이며 그리고 x를 나타냄은 kh를 나타내고 있는 X와 달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자의 기원은 애매하다. 이런 기호들이 Cyproite 음절로부터 소 아시아에서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리이스어에 병행했던 다양한 지역적인 알파벳들이 소 아시아에서 사용됐다. 예를들어 Lydian 알파벳은 기원전 4 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비문들로부터 알려진다. 이것들 중 몇몇은 19세기에 발견됐다. 1910년과 1913년 사이에 미국 탐험대에 의해 Sardis에서 36 개가 발견됐으며, 그 나머지는 J.Keil과 Von Premerstein과 다른사람들에 의해 1906년 이

후 고대 Lydia의 다양한 부분들에서 발견됐다. 다른 미국 탐험대는 1960년 대 초에 Sardis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Lydian 알파벳은 26 개의 기호들로 구성됐다. 그리이스어 아파벳과 썬어 알파벳의 병행(paraplelism, 並行)은 선명하다. 그러나 그것들의 어떤 소리가 비문들의 언어의 완성된 어떤 해석의 부재 때문에 불확실한 부가(additional, 附加)된 기호들이 있었다. 이런 알파벳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인 f를 위한 기호가 동일한 소리를 위한 Etruscan과 Italic 기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6)형태론과 구문론과 어휘

6-1)고전 그리이스어

6-1-1)형태론과 구문론

그리이스어의 굴절(inflexions, 屈折)들은 수와 격과 인칭과 시제와 시상과 법과 태의 일상적인 범주들을 지닌 인도유럽어 류형의 특성을 지닌다. 가장 밀접한 등가어는 산스크리트어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도이란어와 그리이스어의 굴절들 인도유럽어의 재구성을 함께 정당화시켜준다고 상정돼왔다. 어느 하나이든 다른 하나에 빛을 던져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일 것이다. (아버지이름을 딴 (patronymic)형용사의) 여격 τῷ Νικιαίῳ(앗티카어로는 τῷ Νικιαίῳ)이 Σθενείῳ(보통 앗티카어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의 소유격 τοῦ Νικίου이 사용된다)와 동격인 그리고나서 아버지 이름을 딴 소유격인 τῷ Γαυκίῳ (보통 앗티카어에서는 할아버지의 이름의 독립소유격 τοῦ Γαυκοῦ를 사용하는 곳인, 아버지이름을 딴 여격 포함된 소유격 의미와 동격이다)은, 전치사들이 현대영어 어순과 묶어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라틴어 또는 고대 영어와 대조되는, 그리고 그리이스어에 있어서의 굴절 사이의 대조의 형식과 용법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리이스어의 유연성의 좋은 예시이다.

동일한 웃점이 동사체계에 관해서도 성립될 것이다; 예를들어 μειδιάσας ἔφη는 “he said with a smile”(그가 웃으며 말했다)를 의미하지, “웃었으면서”(having smiled)(시제)를 의미하지않는다. 왜냐하면, 부정과거분사는 여기에서 시상(aspect, 時相)(행위의 시간이 아니라 종류)에 관계하며 따라서 앞선 시간이 아니라 동시적인 시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동사(λαυθάνω와 다른 것)들은 변함없이 이런 구문을 지닌다. 다시 그리이스어의 완료 ‘시제’(tense)는 현재시간에 완성된 사건(τεθνήκε “he is dead” 그가 죽었다)을 표시하며, 현재 ‘시제’는 ἀποθνήσκει “he is (an unconscionable long time a-)(아주오랜시간-) dying 그는 (아주오랜시간동안죽어가고있

다”(또는 “he is fading away like snow in the thaw” 그는 해빙기의 눈처럼 쇠약해지고 있고)에서처럼 계속되는 행위를 표시하고, 그리고 (η 가 아니라 η , κ 가 아니라 $\sigma\kappa$ 를 지니는) 현재의 $\alpha\pi\omicron$ -는 완료형의 $\tau\epsilon$ -과 대조된다. 그리이스어의 굴절들과 구문론은 그러한 미묘(niceties, 微妙)함들로 가득차있다.

다른 스타일들은 역시 다른 것들을 지닌다. 서사시의 판에 박은듯한(formulaic) 특색들은 그것의 구전적인 작시(oral composition, 作詩)를 드러낸다. 예를들어 수세기 성장하며 완성된 많은 가수들의 작품인 Iliad는 아마 결국 한 사람의 시인에 의해서, 비록 그러나 확실히 그의 근원적인 작시는 아니지만, 완성됐을 것이다. 역사가들 Herodotus와 Thuchdides에게는 문장의 구조에 있어서의 간결함의 정도와 문법적인 문체와 역사의 다른 개념들—헤로도투스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인 반면 투키디데스는 보다 더 비판(critical)적이기를 시도한다—이 잘 어울린다.

또 역사가들은 긴 말들을(어디까지가 진짜이며 어디까지가 허구인지가 논란거리지만) 인용하며, Demosthenes와 같은 웅변가는 (비록 간결하지만) 정확한 목적담을 간접적으로 잘 인용한다 그리고 간접화법(oratio obliqua) 대신에 고안된 새로운 종합(syntactic, 綜合)적인 어법은 라틴어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접속법과 회구법의 존재 덕분에 의미의 다양함을 보다 더 잘 표현한다. 그리이스어는 중간(또는 “boomerang, 부메랑” 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간태 형식들로부터 자란) 수동태를 지닌다. 영어 “he fired a gun”(능동태, 그는 총을 쏘다)과 “the gun fired”(중간태, 쏘진 총)과 “the gun was fired”(수동태, 그 총이 쏘졌다)와 “he washed himself(중간태 또는 재귀)(즉 “he was washed”, 수동)은 의미의 옷점을 예시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lambda\omicron\upsilon\omega$ 는 능동태이며, $\lambda\omicron\upsilon\omicron\mu\alpha\iota$ 는 중간태와 수동태이다. 부정과거 수동태는 중간태로부터 파생되지 않지만 그러나 고대 자동사($\epsilon\mu\acute{\alpha}\nu\eta$ “he was mad”)이든지 또는 $-\theta\eta\varsigma$ (단지 이 인칭 단수; 산스크리트어의 *adithas*, 중간태를 비교하라)형의 독립적인 확장(extension)($\epsilon\delta\acute{o}\theta\eta$ “it was given”)이든지 한다. 사실 그러한 부정과거 수동태들은 (그리고 늦은) 서사시에는 확실히 드물다.

6-1-2)어휘.

그리이스어의 어휘는 많은 수의 복합어들에서 표시된다. 이러한 복합어를 형성하는 힘은 전체 그리이스어 기간을 통해 두루 자유로우며 격렬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형태론(형식)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표현 (의미)의 문제이다. 예를들어 Aristophanes는 이러한 말들로 Euripides 더러 Aeschylus에 관해 말하도록 만든다(Frogs 837-839).

ἄνθρωπον ἀγριοποιὸν, ἀθάδοστομον,
 ἔχοντ' ἀχάλινον ἀκρατὲς ἀπυλωρον στόμα,
 ἀπεριλάλητον, κομποφακελορρήμονα
 난폭하게-창조하는 고집불통의-끌어당기는 동료, 억누르지 못하는,
 족쇄가 채어져있지 않은, 말-이-조절되지않는,
 완곡어법을구사하지못하는, 허왕된, (번역 B.B.Rogers)

그래서 그리스어는 아주 풍부한 어휘를 지닌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인들은 학문과 논리와 철학과 수학을 서구와 그 바다너머 팽창지역에 있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비교될 수 없는 길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여전히 사용 중에 있는 풍부한 학문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어휘들이 있었다. 물론 새로운 고학들에서의 새로운 요구들 또는 고대 학문들에서의 새로운 발전(예를들어 전자기학 또는 현미경 또는 생물학)들이 그리스어 낱말들을 차용함에 직면하거나 또는 그리스의 그것에 토대를 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함에 직면한다(J.Wh.).

고대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는 많이 달라서 분리된 부분들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연적이다.

6-2)현대 그리스어

6-2-1)음성학.

고대 그리스어의 멜로디 액센트는 현대 언어에서는 영어의 그것과 같은 강세(stress, 強勢)액센트로 바졌으며 그리고 모음들의 고대 량적인 구분들은 상실됐다. 낱말 끝에서를 제외하면 액센트를 지니는 모음들은 다소 길어지며 더 높은 가락(pitch)으로 발음된다. 글쓰기에 있어서의 고대 기식의 보존은 기식(aspiration, 氣息)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숨긴다: ἀλάτι “salt”는 *ala,ti*로 발음된다. 비슷하게, 액센트 고대 규칙들이 대부분 문어(written language, 文語)에서는 유지되는 반면 엑큐트 또는 그라브 또는 서컴플렉스 액센트의 사용은 단지 정서법(orthographic, 正書法) 상의 구분일 뿐이다. 구어(spoken language, 口語)는 고대 액센트의 口냥은 이동과 그리고 범형을 통한 동일한 음절에 강세를 유지하는 두드러진 경향을 보여준다: ἔτοιμος “ready”는 글로 쓰여진 ἐροίμη와는 대조적으로 여성형 ἔτοιμη를 형성한다.

그리스어는 a 대신에 α; o 대신에 ο, ω; u 대신에 ου; i 대신에 η, ι, υ, ει, οι; e 대신에 αι 등 다양한 길의 철자법고 함께하는 세 개의 후설 모음들(a, o, u)와 두 개의 전설 모음들(i, e) 다섯-모음체계를 지닌다. ευ, αυ 연결들은

잇따르는 자음들이 유성음이나 또는 무성음이나에 따라 ev, au 또는 ef, af로 발음된다. 고대 그리스어의 자음체계는 두드러지게 변경됐다; 유성폐쇄음들은 유성기식음들로 됐으며 그리고 무성 기식음들은 무성마찰음들로 됐다. 그래서 β와 δ는 영어 v와 그리고 the의 th처럼 발음되며, 후설모음 앞의 γ는 독일어 ach의 ch의 유성음 짝인 반면, 전설모음 앞에서의 γ는 영어 y와 같고, θ는 영어 think의 th와 그리고 φ는 영어의 f와 그리고 전설모음 앞의 χ는 독일어 ich의 ch와 그리고 후설모음 앞의 χ는 독일어 ach의 ch와 같다. 소리들 b, d, g는 낱말 맨 앞에서는 (initially) μπ, ντ 와 γτ의 철자법을 지녔으나, 내적으로(internally) 이런 연결들은 보통 mb, nd, ηg의 값을 지닌다. 끝의 n은 mb, nd, ηg 연결들을 형성하기 위해 첫 문자 p, t 또는 k와 묶어진다. 비록 이것이 글 쓰기에서는 가리켜지지 않기는 해도 말이다: τὸν πατέα, tombatéra; τὸν τόπο, tondópo; τὴν κόρη, tīgóri. 이러한 현상들은 “밀접한 연결(juncture)”의 증거이다. 즉 낱말들이 밀접하게 서로 이어진다. 말해진 언어는 항상 철자법에 등재된 것만은 아닌 많은 음성학적인 발전들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πτωχός “poor”는 φτωχός로, νύμφη “bride”(새색시)는 νύφη로 된다.

6-2-2) 문법.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tongues)는 쌍수와 회구법과 부정법(infinitive moods)을 상실했다. 여격은 구들을 형성하는 것(예를들어 δόξα σοι ὁ θεός “Thank God”)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라졌으며 그리고 소유격으로 또는 전치사 σε (εἰς) 더하기 목적격으로 교체됐다. 말해진 언어에서의 명사들의 소유격 복수는 자주 ἀπό 더하기 목적격으로 교체됐다(대중적(popular) 기원의 모든 전치사들은 목적격을 지배한다는 것에 유의하라).

6-2-2-1) 명사변화.

쓰여진 언어가 대부분 고대 명사변화들을 유지하는 동안 말해진 언어는 단순화됐으며 그 변화들을 수정시켰다. 정관사는 주격에 (남성처럼) 여성 복수 οἱ와 목적격에 τίς를 지닌다. -ας로 끝나는 고대 3인칭 남성 명사의 변화(declension, 變化)는 소유격 -α 라는 새로운 어형변화(inflexion, 語形變化)를 생산했으며(ὁ πατέρας “father”, 소유격 τοῦ πατέρα), 고대 3인칭 명사 변화의 여성들은 -α로 끝나는 주격과 소유격 -ας를 획득했다(ἡ ἐλπίδα “hope”, 소유격 τῆς ἐλπίδας). 음절적으로 보완된 새로운 복수형성은 ὁ ψωμάς “baker”, 복수 οἱ ψωμάδες와 같은 범형 속에서 일반화된다. 후자의 형성은 마찬가지로 그것의 사용이 많은 주격과 목적격 복수들을 포

함하기 위해 두드러지게 확장된 고대 3인칭 변화 어미인 -ες를 보여준다: οἱ μέρες “the days” (쓰여진 언어는, 고대 그리스어처럼 αἱ ἡμέραι를 지닌다); τοὺς πατέρες(4격) “the fathers” (τοὺς πατέρας 대신에).

6-2-2-2)형용사

대중적인 어법에서 형용사들의 악센트는 그 범형 내 내 고정된 채 남아있다: πλούσιος “rich”는 소유격 πλούσιου를 지닌다, 몇몇 고대 비교형들이 생존하는 동안 (μικρότερος “smaller”), *πιο 더하기 원급 이라는 새로운 비교급* 형성(πιο μεγάλος “larger”)이 아주 흔하다. *최상급*은 이런 비교급 각 각 앞에 정관사를 놓음에 의해 형성된다(ὁ μικρότερος, “the smallest”, ὁ πιο μεγάλος “the largest”). 비교 시에 “than”(보다)는 소유격의 사용에 의해 또는 목적격을 지닌 ἀπό에 의해 보통 가리켜진다: εἶμαι μικρότερος ἀπ’ τὸν Πέτρο “I am smaller than Peter.”

6-2-2-3)수사

ἕξι “6”, ὀχτώ “8”, τριάντα “30”, σαράντα “40”, πενήντα “50”, ἑξήντα “60” 등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많은 새로운 형식들이 있다. δύο “2” 형식은 그 자체로 또는 강조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 낱말들이 잇따를 때는 δυό이다. ἑκατόν “100”은 그 자체 또는 잇따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지만 다른 수들이 잇따를 때는 ἑκατόν으로 변한다. 특별한 흥미를 끄는 수사를 지닌 몇몇 표현들이 있다: τρεῖς φορές “three times”; πέντε τοῖς ἑκατό “5%”; στὶς δέκα καὶ τέταρτο “at 10:15”; μισὴ ὥρα “half-hour”; στὶς εἴκοσι Δεκεμβρίου τοῦ χίλια ἐνιακόσια πενήντα “on Dec. 20 1950”.

6-2-2-4)대명사

제 1인칭과 2인칭의 강조형들은 (ἐ)μένα, (ἐ)σένα; 복수 (ἐ)μᾶς, (ἐ)σᾶς이다. 모든 성들을 위한 제 3인칭 복수 소유격은 공통적으로 τούς이다. 농부 말 중에는 *결양*의 대명사 불변화 완곡 표현인 τοῦ λόγου σου “you”(그대)가 존재한다. *새로운 소유 대명사*는 ὁ (ἰ) δικός; θέλεις μιὰ πένα; πάρε τὴ δική μου “do you want a pen? Take mine”. ἴδιος는 “self”를 의미하기 위해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사용된다(ἐγὼ ὁ ἴδιος “I myself”). 그리고 “same”(동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사 앞에서 사용된다(ὁ ἴδιος ἄνθρωπος “the same man”). 새로운 *공통의 관계대명사*는 부사 ποῦ “where”로부터 형성된다: ἡ γυναῖκα ποὺ εἶδατε “the woman whom you saw”. *의문 형용사와 의문대명사* “who”, “which”는 공통으로 ποιός이다: ποιὸς ἦρθε; (“;”는 그리스어 의문사이

다) “Who came?” ποῖο βιβλίον θέλεις; “which book do you want?” 불변화사 τίς는 “what” 또는 “what sort of”: τί (λογῆς) βιβλίον θέλεις; “what sort of book do you want?” (마찬가지로 τί ὥρα εἶναι; “what time is it?”임에 유의하라). 마찬가지로 부정(negative, 否定)문에 있어서 다른 의미들을 지니는 부정(indefinites, 不定)적인 몇몇 기능: (κανείς로부터 쓰여진)κανένας, “some one” 또는 “no one” (ἦρθε κανένας; “Did anyone come?” 그러나 κανένας δὲν ἦρθε “Nobody came”); 그래서 마찬가지로 τίποτε (τίποτα)는 “something”과 “nothing”을 뜻한다. 다른 대명사들은 ὁ καθένας “each one”; κάτι (τι) “something”; ὁ κύριος τάδε “Mr. So-and-So”; κάποιον παιδί “a certain child”.

6-2-2-5)동사변화(Conjugation).

슬라브 언어들처럼, 현대 그리스어는 동사체계에서의 시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aspect, 相)의 범주들을 꾸준히 표현한다. 각 동사는 연속적인 또는 반복되는 행위를 위한 미완료 어간과 순간적인 도는 단일한 행위를 위한 완료적인 어간 등 두 가지 대조되는 어간을 지닌다. 그래서 γράφε μου συχνά “write me often”은 미완료적인 어간을 사용하며, γράψε μου αύριο “write me tomorrow”는 완료적인 어간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명령과 미래와 접속법에 있어 중요하다(H-J. Seiler, L’Aspect et le temps dans le verbe néogrec, 1952를 보라). *고대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는 접속법으로 바꼈다—부정형(infinitive 不定形)을 접속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Balkan 언어들 of 公同의 특질이다. 그래서, θέλω νά εἶμαι “I wish to be” (접속법 신호(sign, 信號)로서의 νά는 고대 ἵνα로부터 왔다). 마찬가지로 *명령법*도 자주 접속법으로 바꼈다: νά (ἄς) γράφουμε (γράψουμε) “let us write” (ἄφες “leave”, “let” 대신에 ἄς). *미래 시제*는 현재 또는 부정과거 접속법 앞에 (θέλω νά “I wish that” 대신에) 불변사 θά를 불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런데 위에서 가리켜진 것처럼, aspect(상, 相)이 다르다. θά가 미완료시제에 덧붙여질 때, 그것은 조건을 형성한다: θά ἔχανα, “I should lose”. 로맨스(Romance) 언어들 of 복합 완료체계와 유사한, 새로운 여러 분석 형식들이 글쓰기에서 주로 사용된다: ἔχω δέσει “I have bound”, ἔχω δεθεῖ (또는 δεθεῖ) “I have been bound” (δέσει, δεθεῖ는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다). *말해진* 언어에서의 *부정과거* 수동은 *글로쓰여진* 언어에서 계속되는 고대 범형과 다르다: χάθηκε “it was (has been) lost”. -οντας로 끝나는 *새로운 불변화 현재* 능동은 대부분 글로쓰여진 스타일에 한정된다: γράφοντας “(in) writing”.

6-2-3) 어휘.

위에서 언급된 **말해진** 스타일과 **글로쓰여진** 스타일 사이의 문법적인 차이에 덧붙여, 어휘의 많은 차이들의 예들이 주어질 수 있으리라(첫째 것이 글로쓰여진 형식[문어체]이다): ἡ ἐπιστολή--τὸ γράμμα “letter”; ὁ οἶνος—τὸ κρασί “wine”; ἡ χεῖρ—τὸ χέρι “hand”; ἡ ῥίς—ἡ μύτη “nose”. 다음의 것들은 양자의 스타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글월이다:

(**말해진**): “Ενας χωροφύλακας σκοτώθηκε, καθώς μαθαίγω, μὲ μιὰ τουφεκιά.

(**글로쓰여진**): Χωροφύλαξ τισ ἐφονεύθη, καθ’ ἃ πληροφοροῦμαι, διὰ ὄπλου.

(A gendarme, I am told, was shot and killed.)”

고대 언어의 어휘는, **글로쓰여진** 스타일 안에서 고대 낱말들의 훨씬 더 주요한 집중 또는 고대 낱말들에 따라 빛어진 신조어(neologisms, 新造語)들과 더불어, 자연스레 현대 그리스어의 토대로 남아 있다. 예를들어 의학과 다른 기술(technical, 技術)적인 용어들에서와 같은 **많은 경우에** 고대 낱말들은 **글쓰거나 말하기 위해 유일한** 하나의 이용가능한 것이다: ἀπεργία “strike”; λαθρεπιβάτης “stowaway”; συνταγματάρχης “colonel”; ὕλισμός “materialism”; χαμηματοκιβώτιον “safe”; περιστροφον “revolver”; διανοούμενος “intellectual”; ἐρασιτέχνης “amateur”; στρατόπεδον συγκεντρώσεως “concentration camp”; ῥιζοσπάστης “radical”; ποδόσφαιρον “football”. 어떤 경우에는 외래어의 요소들이 그리스 등가어(빌려온 번역어)로 번역됐다: γραφειοκρατία는 불어 bureaucratie “bureaucracy”를 재생산한다.

그 언어에 아주 많이 스며들었던 외래어들은 기원후 325년 동로마 제국의 건립부터 십자군 전쟁을 통해 Venetian과 Turkish 정복에 이르는 고전 이후의 그리스에 요동쳤던 또는 거기에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양한 권력들의 영향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예를들어:

Latin: ἄκκουμπῶ “lean”; κάμαρα “room”; κελλί “cell”; κουκούλα “hood”; λουκάνικο “sausage”; μαντήλι “handkerchief”; πόρτα “door”; σουβλα “spit”; σπίτι “house”; ταβέρνα “tavern”.

Slavonic: βερβερίτσα “squirrel”; ρούχα “clothes”; σανός “hay”; σβάρνα “harrow”. 차용어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이런 차용어들은 Ἀράχοβα와 같은 지명(place names, 地名)들을 포함한다.**Rumanian(Vlach):** μπουμπούκι “bud”; σαρμανίτσα “crib”; 아주 드문 차용어들은 대부분 목가(pastoral, 牧歌)적인 삶을 지시한다.

Albanian: πλιάτσικο “booty”; φλογέρα “rustic pipe”; 극히 적은 차용어들은 Σούλι 같은 지명들을 포함한다.

Turkish: γιαούρτι “yoghurt”; καΐκι “caïque”; καρπούζι “melon”; κέφι “good humor”; μανάβης “greengrocer”; μεζές “snack”; μενέξες “violet”; μπαρούτι “gunpowder”; παπούτσι

“shoe”; σουγιάς “pocket knife”; τεμπέλης “lazy”; τσέπη “pocket”. 그 점령 동안에 아주 많이 주어진 터키 차용어들 중 많은 것들이 폐기되거나 또는 자국어들에 의해 교체됐다.

Italian: κάλτσα “sock”; καπετάνιος “captain”; κουμπάρος “best man”; πατάτα “potato”; πιάτο “plate”; τενόρος “tenor”; φουρτούνα “tempest”. 많은 로맨스어 차용어들은 바다에 관한 용어들과 관계있다.

6-3)구조의 통시(panchroic, 通時)적인 견해.

그리스어의 주요한 구조적인 특색들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고전어*와 *현대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이것들 둘 사이의 다름을 특징지우는 변화는 *헬레니стик* 시기부터 시작했다. 비록 그것들이 *중세그리스* 때까지 일반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는 해도 말이다. 더구나 중세그리스어와 *현대그리스어*는 조금(minimally) 다르다. 따라서 이런 논의는 폭 넓게 분리되는 이것들 두 시기들에서의 그리스어의 구조적 개요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겪고 있는 주요한 변화도 가리켜 내야한다.

6-3-1)음성학

41쪽 표 1과 표 2에 주어진 알파벳은 고전그리스어(고전어)와 현대그리스어(현대어) 각 각의 음성학적 체계들에 관한 좋은 관념을 제공한다. 그 양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자음과 모음체계들이 발견된다.

*고전그리스어*에는 분명한(plain) 유성폐쇄음들과 분명한 무성폐쇄음들과 기식 무성폐쇄음들이 있으며(b d g, p t k, p^h t^h k^h), (유성 자음 앞에서의 이음(allophone, 異音) [z]을 지니는) 마찰 치음 s와 그리고 마찰 후음 h가 있고, (첫 머리에 무성 이음을 지니는) 공명음 r, (연구개음 앞에서 이음 [ŋ]을 지니는) l m n 있다. 반모음들 [j]와 [w]은 단지 비록 그 양자가 Mycenaean의 경우 다른 위치들에서 발생하기는 해도 이중모음에서의 경과음들로서만 발생하며, 그리고 [w]는 고전시대에 Attic/Ionic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현대그리스어*는 분명한 무성 폐쇄음들 그 자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초기 고전-이후의 변화들은 유성폐쇄음들을 유성마찰음들(v ð γ)로, 그리고 기식 폐쇄음들을 무성 마찰음들(f θ χ)로 변화시켰다. 덧붙혀 현대 언어는 보다 이른 비음 + 폐쇄음 조합으로부터 결과하는 유성폐쇄음들 b d g를 지닌다; 예를들어 고대 entrépōmai ‘I feel misgivings about’와 endúnō ‘I put on (clothes)’은, 규칙적인 모음변화들과 더불어, 현대어의 drépōme ‘I feel ashamed’와 díno ‘I dress (someone)’을 야기시켰다. 유성폐쇄음들의 다른 재원은 예를들어 터키어 bakal로부터의 bakális ‘grocer’,

불어 *douche*로부터의 *dús* ‘shower’ 등에서와 같은 차용어들이다. 덧붙혀 [tʰ]와 [dʰ]는 주로 전설모음들 앞의 보다 이른 k와 t의 산발적인 마찰과열음들을 통해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방언과 외래 차용어들을 통해서 중세그리이스어에 더해진다. 현대 그리이스어는 비록 r의 유성 이음없이이기는 해도 공명음(sonorants, 共鳴音)들을 포함하며, 그리고 [j]는 모음들에 인접한 악센트없는 다양한 i로 그리고 전설모음들 앞에서의 다양한 g로 다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리이스어는 보다 이른 s를 유지하며 그리고 z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의 음소이다.

모음들과 이중모음들은 다소 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한다. *고전 Attic/Ionic*은 아래 표 3에서 보여진 목록들을 지닌다. 짧은 이중모음 목록에서의 사이(Gaps)들은 ([ej] 또는 [ow]를 결여함) 고전-이전의 소리변화들 [ej] →[e:]와 [ow]→[o:]에 의해서 야기됐다. 긴 이중모음들은 일반적으로 드물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이 고전 시기에 [j]를 지닌 이런 긴 이중모음들은 상응하는 긴 단모음에 병합되는 자신들의 경과음(offglide, 經過音)을 잃어버린다.

고전 Attic/Ionic 그리이스어 모음들과 이중모음들	
i i: y y:	yj
e e: o o:	ej ew e:w oj o:j
ɛ: ɔ:	aj a:j aw a:w
a a:	

대조적으로 현대 그리이스어는 짧은 단모음 i e a o u를 지니는 단순한 다섯-모음 체계를 지닌다. 이러한 체계는 [e:]의 [i:]에로 올라감, 특징적인 길이의 손실, (10세기 이후의) [y]의 [i]의 비원순화(unrounding, 非圓脣化), 그리고 이중모음과함께하는 다양한 발전들을 통해서 생겨난다. 마지막 것은 유성분절 앞에서 [ew]와 [aw]의 [v]로의 그리고 무성분절 앞에서 [f]로의 경과음의 자음화뿐만 아니라, [aj]의 [e]로의 그리고 [yi]와 [oj]의 ([y]의 단계를 통한) [i]로의 단모음화를 포함한다. 현대 그리이스어는 예를들어 차용어들(예를들어 터키어로부터의 *bói* ‘stature’와 같은) 또는 선택적인 강제-이동(*voíθisa*로부터의 *vóθisa*)과 같은 다양한 기원의 귀결인 어떤 유사한-이중모음을 지닌다. 그러나 구분된 이중모음들로서의 이런 것들의 분석은 논쟁적이다.

음성학적으로 *고대 방언*들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하나는 반모음들의 분포이다. [j]와 특별히 [w]는 Attic/Ionic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Mycenaean, Doric,

그리고 Aeolic에서 발생한다. 보다 더 의의있는 다양함은 공통그리스어의 결과로서 손상되지않은채로(intact) 미케네어에서 발견되는 입술연구개음이다; 반전 순음은 (대부분) Aeolic에서 발생하는 반면 반전(reflexes) 치음들은 (예를들어 *penk^we로부터 온 Lesbian pémpē ‘five’ 대(vs. 對) Attic/Ionic pénte와 같은) 어느 곳에서든 발생한다. Obstruents(방해음) 더하기 반모음들을 포함하는 군(clusters, 群)은 다양하게 예를들어 *t + j 이 앓티카와 보에티아에서는 [tt]로 그러나 이오니아와 아르카디아와 그리고 도리아 대부분에서는 [ss]로 다루어졌다. 공명음 + *s의 군(clusters)은 아이올리아에서는 쌍으로(geminates) 발전했지만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보상적인 길어짐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주요 방언적인 차이들은 모음체계에서도 발견된다. 그래서 Attic/Ionic은 *a:에서 공통 그리스어 [æ:]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e:]로 용기하여 전설(fronted, 前舌)화되며 그리고 *u(:)에서 [y(:)]로 전설화된다.

현대 방언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북쪽 시골 방언들은 대부분의 강제없는 높은(high)모음들을 말소해버리면서 강제없는 중간(mid)모음들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표준언어와 주로 차이난다. 경구개음화(특히 전설모음 앞의 [k] 대신 [tʃ])는 (많은에게 해 섬들과 사이프러스를 포함한) 남동부와 그리고 크레테의 방언들을 특징지운다.

엑센트 체계는 특별히 언급될만하다. 고전그리스어는 (엑큐트로 알려진) 높음과 (그라브로 알려진) 낮음과 (서킴플렉스로 알려진) 굽음(contour, 음조곡선) 등 세 가지 구분되는 가락(pitch) 엑센트(역양)을 지녔다. 엑센트의 위치와 유형은 oíkoi ‘at home’ 대 oíkoι ‘houese’, 그리고 timá ‘two honors’ 대 tímā ‘(you) honour!’와 같은 그런 짝에서 보여지듯이 구별적이다. 그러나 엑센트의 위치와 실현의 어떤 측면들은 예견할만하다: 그래서 서킴플렉스(circumflex) 엑센트는 긴 울티마—또는 짧은 울티마와 함께하는 긴 페널티 음절에서만 단지 나타날 수 있었다. 더구나 한정동사형과 어형변화된 어찌 명사에서 엑센트 위치는 ‘퇴행적’이었다: 그것은 비록 어떤 단어의 마지막 세 음절 중의 하나에 한정되긴 해도, 가능한 한 그 단어의 끝에서 발생했으며, 그래서 [악센트로 강세와 역양들의 단위가 되는 음의 상대적인 길이인] mora(모라)에-근거한 제한들(예를들어 울티마가 길 경우의 페널티에 또는 울티마에 엑센트). 따라서 만약 마지막 음절의 길이가 굴절 동안에 변했다면, 엑센트의 위치는 퇴행적으로 엑센트화된 형식들로 마찬가지로 변했다—예를들어 긴 울티마 때문에 페널티 엑센트를 지니게 된 komízō ‘I provide for’ 대(vs. 對) 짧은 울티마 때문에 안티페널티 엑센트를 지니게 된 ekómisa ‘I provided for’.

대조적으로 *현대 그리스어*는 후기 헬레니스틱/초기 중세 그리스어 변화의 결과로 단일한 강세 액센트(억양)만을 지닌다. 그러나 강세의 위치는 한 단어에서의 보다 이른 높은 가락(엑큐트 또는 서컴플렉스 액센트)의 위치에 대부분 상응한다. 길이 구분들은 잃어버렸으므로,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세 Mora 법칙의 등가라고 할 수 있을 ‘세 음절 법칙’이 통용된다. 그러나 분석적인 평균화는 더 이른 시기에는 유동적인 액센트를 지녔던 많은 범형들에 고정된 강세(stress, 強勢)를 찍는 것으로 이끌고 간다. 현대 그리스어 액센트는 여전히 구별(distinctive, 區別)적이다. *kírios* ‘mater’ 대 *kitífos* ‘chiefly’와 같은 그러한 짝에서 보여지듯이 말이다.

6-3-2) 형태론.

그리스어는 동시에 여러 문법적인 특색들을 동시에 부호화하는(encode) 접사들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구분들을 표시하는(예를들어 비(non, 非)-과거 능동 직설 1인칭을 위한 [-o:]), 일반적으로 혼합적인, 굴절언어이다. 중세 그리스어에서는 많은 분석적인 형성들이 초기의 종합적인 것들을 교체하기 시작했다(예를들어 미래시제, 명령 1인칭과 3인칭, 또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그러나 심지어 중세 그리스어조차 고전어와 동일한 유형론적 다양함을 근본적으로 지닌다고 말해질 수 있으리라. 그리스어는 상대적으로 많은 굴절적인 범주들을 지닌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명사적 또는 동사적 어간을 위한 도처의 구분된 세트의 형식들이 극단적으로 많다(high).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표준 문법들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들 그 자체를 목록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만들어지지 않는 대신에, 단지 그 범주들만이 주어진다.

여러 범주들은 명사적인 체계(명사들과 형용사들과 대명사들)에 상관적이다. *고전 그리스어*는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과 여격과 호격 이라는) 다섯 가지 격과 그리고 (단수와 쌍수와 복수 라는) 세 가지 수들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과 중성 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성 부류를 지녔다. 대조적으로 *현대 그리스어*는 그 간접 목적어 기능을 지니는 여격이 소유격에게 또는 전치사적 완곡어구에게 길을 내어주며 그리고 그것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격을 사용하는) 네 개의 격들과 그리고 (단수와 복수 등) 두 개의 수와 그리고 동일한 세 가지 성 부류를 지닌다.

*고전 그리스어*에서의 이런 범주들의 실현은, 명사들과 형용사들의 경우, (i- 그리고 u-어간들을 포함하는) 자음어간들과 o-어간들과 a-어간들마다 다른 굴절들을 지니는, 음성학적으로 규정되는 굴절 부류들에 의존한다. 현대 그리스어에

서의 명사 굴절 부류의 배정은 대부분 음성학적인 모양이 아니라 성에 근거한다. 그래서 고전 그리스어 남성 자음 어간 명사 *patér* ‘father’와 여성자음어간 *mētēr* ‘mother’은 비슷한 굴절을 하는 파트너(예를들어 목적격 단수 *patér-a*, *mētér-a*, 소유격단수 *patr-ós*, *mētr-ós*)이지만, 현대 그리스어에서의 패턴은 다르다(예를들어 명사 단수 *patéra-s*, *mitéta-Ø*, 소유격 단수 *patéra-Ø*, *mitéra-s*).

고전 그리스어의 동사 체계는 명사적인 체계 보다 형태론적인 범주들에 있어서 훨씬 부유함을 보여준다. 비록 1인칭과 쌍수의 연결이 일반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세 가지 수(단수와 쌍수와 복수)에게 세 가지 인칭들이 굴곡적으로 관련된다. 인칭과 수 표시자들은 마찬가지로 퇴행적인 액센트에 의해 표시됐던 한정됨의 형태론적인 지시자로 봉사한다. 한정되지 않은 형식들은 책무나 능력을 가리키는 동사적 형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기술되는 태와 시상과 시제 범주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분사들과 부정사(*infinitives*, 不定詞)을 포함했다.

태의 범주 내에서의 세 가지- 길의 구분은 능동태와 수동태와 ‘중간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중간태는 재귀적이거나 또는 주어에-향하는 행위들을 가리킨다(예를들어 능동태 *bouleúō* ‘I take counsel’ vs. 중간태 *bouleúomai* ‘I take counsel with myself, deliberate’). 수동태는 형식적으로 중간태와 단지 미래와 단순과거 시제들에 있어서만 구분된다. 마찬가지로 고전 그리스어는 직설법과 접속법과 명령법과 희구법[*opative*, 기원법]이라는 네 가지 동사적 법을 지녔다. 이것들 모두는 다양향태와 시간적/시상적인(*temporal/aspectual*) 범주들에서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고전 그리스어는 일반적으로 일곱 ‘시제’들을 지닌다고 말해진다: 현재, 미래, 현재완료, 대과거, 미래완료, 미완료과거, 그리고 단순과거(*orist*) 부정과거). 이런 범주들은 현실적으로 순수하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인 구분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연속(미완료)과 완성(완료)와 시점(*punctual*, 時點)적인 행위(부정과거, 不定過去)도 나타낸다(*encoded*). 단지 과거시간형들만이 그 전체(미완료와 대과거와 부정과거)에 있어서 시상적인 구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전체 시상 구분)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정형이 아닌 분사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실현된다.

현대 그리스어는 비록 범주들에 관한 그것의 표현이 자주 종합적이라기 보다는 분석적이기는 해도 [고전 그리스어와] 대부분 동일한 범주적 복합성을 지닌다. 쌍수는 완전하게 상실됐으며, 한정되지 않는 형식들의 체계는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의 상실과 더불어 두드러지게 감소됐으며—Balkan의 특색—

그리고 단지 몇 몇 분사들만이 남았다. 비록 희귀이 굴곡적으로 보다는 사전적으로 오히려 표현되며 그리고 현대 실현들 중 많은 것이 그것의 고대 짝들과 다르기는 해도, 법과 태와 시제와 시상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남아있다. 중간태와 수동태의 형성들은 지금 모든 시제들에 있어 동일하다. 접속법과 미래와 2 인칭이 아닌 명령법들은 모두 분석적으로 또는 단지 접미사들만의 대신에 접두사와 접미사들과 더불어 분석적인 어떤 추측에 의존하여 표현된다(접속법의 형식적인 범주의 존재는 다소 논쟁적이다). 더구나 동일한 시제들과 시상들이 그전 그리스어에서처럼 발견되는 동안 현대의 완료체계는 헬레니스틱 시대에서의 고대 완료의 손실 후에 일어나는 중세 그리스어의 새로운 형성들을 이어가며, 그리고 미래는 동사 ‘원하다’(want)를 지니는 중세 그리스어의 완곡어법을 계속 이어간다(Balkan의 다른 특색). 마지막으로 그 언어는 연속적이고/시점적 시상 구분을 미래 시제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미래 표시자와 형식적인 과거시제와 함께하는 조건적 형성을 창조했다.

6-3-3)구문론

그리스어의 구문론은 간략하게 거의 다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몇가지 특색들은 특히 두드러진다. *고전 그리스어*는 잘짜여진 동사 보조 체계를 제시했다. 한정되지 않는 동사형, 즉 부정사와 분사는 다양한 종속 접속사들과 함께하는 시제와 법의 다양한 연결들 안에서 자주 아주 미묘한 의미론적 구분들을 표시하는 한정형들이 그러한 것처럼, 보어들로서의 술어 매트릭스(matrix)로 사용됐다. 연이은 시제와 법에 근거한 복합적인 제한은 종속절의 형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행사한다. 대조적으로 *현대 그리스어*는 점차적으로 부정사를 없이 하면서 단지 한정된 보조 만을 허락한다. 이러한 Balkan 특색은 예를들어 전치사적으로 표시된 간접 목적어들과 같은 분석적인 표현을 향한 그 언어의 다른 움직임들과 궤를 같이한다.

모든 국면의 그리스어는 비록 다른 어순들이 스타일적인 기능들을 지녔지만, 구문론적으로부터 공정하게 자유로운 **어순**을 허락했다. *고전 그리스어*는 대명사적인 그리고 문장-부사적인 접어(clitics, 接語)의 잘 발전된 체계를 지녔다.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어는 이 국면에서의 가능하게 진실인 접사(affixes, 接辭)들인 약한 대명사적 형식들이 강한 형식들과 나란히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호메로스 이후의 모든 국면에서의 정관사는 어떤 사전적이거나 구(phrasal, 句)적인 범주들을 명사화하는 데 사용되면서 표현의 두드러진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6-3-4)사전(lexicon, 辭典)

그리스어 사전은 항상 상속된 요소들과 차용된 것들의 혼합이었다. 몇몇 현대 그리스어 낱말들은 (엑센트의 실현을 제외하면) 고전 그리스어로부터 사실 변하지 않았다. 예를들어 *ánemos* ‘wind’; 다른 것들은 여전히 발음과 형태론과 의미에 있어서의 전이(*shifte*, 轉移)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대 재원들처럼 여전히 인지될 수 있다. 예를들어 *γράφο* ‘I write’ (고전 그리스어 *gráphō*), *ánthropos* ‘human being’ (고전 그리스어 *ánthrōpos*).

그리스어의 가장 이른 국면 그 자체로부터의 차용어들을 포함하여, 학습 용어학과 의식적인 ‘높은’(high) 시원주의(*archaisms*, 始原主義)형식으로, 그리스어는 항상 차용어들을 받아들였다. 분명히 토착의 언어 공통체들, 지금의 그리스 부족들의 도래 이전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소위 ‘그리스인들-이전사람들’ 또는 ‘*Pelasgians*’로부터의 차용과 마찬가지로, *Anatolian*과 *Semitic* 언어로부터의 고대 차용어들이 분별될 수 있다. 헬레니스틱 시대에 그리고 중세 그리스어로 그리스인들은 수많은 차용어들을 라틴어로부터 흡수했으며, 비잔티움과 초기 중세에, 몇몇 슬라브어와 알바니아어들이 그 언어로 들어왔다. 중세 후기에 많은 터어키 단어들과(과 터어키를 통한 아랍 기원의 낱말들이 그리스 사전 안에 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여러 낱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된다. 현대 그리스어는 특히 20세기 초에 불어로부터의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영어로부터의 수많은 사전적인 공헌을 보았다. 유럽어로부터의 보다 최근의 외래어(*loans*, 外來語)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용어(*borrowings*, 借用語)들은 형태론적으로 그리고 더 적은 정도에서 음성학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어 패턴들에 동화됐다.

차례

- 1)호메로스 이전의 선형문자들 4
 - 1-1)선형문자 B 4
 - 1-2)선형문자 A 7
 - 1-3)사이프러스 음절문자 8
- 2)호메로스로부터 코이네 이전의 그리스어 9
 - 2-1)텍스트의 진본성 11
 - 2-2)엑센트 전통의 본성 13
 - 2-3)초기 그리스어의 다양함들 14
 - 2-3-1)알파벳과 스펠링의 다양함 14
 - 2-3-2)방언의 다양함 19
 - 2-3-2-1)방언의 분류 20
 - 2-3-2-1-1)아이올리아 21
 - 2-3-2-1-2)도리아 22
 - 2-3-2-1-3)이오니아 23
 - 2-3-2-1-4)앗티카 25
 - 2-3-2-2)고대인들의 이론 29
 - 2-4)그리스어와 다른 인도 유럽어들 30
- 3)코이네와 비잔틴 그리스어 34
 - 3-1)코이네 34
 - 3-2)비잔틴 그리스어 36
- 4)현대 그리스어
 - 4-1)Dialossia 38
- 5)쓰기체계 39
 - 5-1)코이네 공동방언 알파벳 42
 - 5-2)앗티카 알파벳 43
 - 5-3)서부와 동부 알파벳 45
- 6)형태론과 구문론과 어휘 50
 - 6-1)고전그리스어 50
 - 6-1-1)형태론과 구문론 50
 - 6-1-2)어휘 51

6-2)현대 그리스어	52
6-2-1)음성학	52
6-2-2)문법	53
6-2-2-1)명사변화	53
6-2-2-2)형용사	54
6-2-2-3)수사	54
6-2-2-4)대명사	54
6-2-2-5)동사변화	55
6-2-3)어휘	56
6-3)구조의 통시적인 견해	57
6-3-1)음성학	57
6-3-2)형태론	60
6-3-3)구문론	62
6-3-4)사전	63

지도 도표 그림 차례

- 1)그리스 행정지도 1
- 2)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현대 언어지도 2
- 3)인도유럽어 지도 2
- 4)인도 유럽어 계보(Centum과 Satem) 3
- 5)선형문자 B 4, 5
 - 5-1)음절적인 선형문자 B 6
 - 5-2)어표로서의 선형문자 B 6
- 6)선형문자 A 7
- 7)사이프러스 음절문자 8
- 8)산스크리트어와 희랍어 범형의 유사함 22
- 9)도리아 방언의 동사변화 23
- 10)희랍 방언들의 사슬화 26
- 11)방언들 사이의 특색들 27
- 12)고대 헬레네스 지도 28
- 13)고대 방언 지도 28
- 14)인도유럽어들의 첫 폐쇄음 34
- 15)쓰기체계의 시작역사 39
- 16)고전그리스어와 현대그리스어 알파벳 음가 비교 41
- 17)헬레니스틱 알파벳 42
- 18)앗티카 알파벳 44
- 19)동부와 서부 초기 알파벳 44
- 20)고전 앗티카/이오니아어 (이중)모음 58